

9년前처럼 “감 왔다”… 삼성반도체 首長들 ‘自社株 베팅’



‘111억 원’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3인이 열흘 동안 사들인 주식 매수액이다. 이들은 올해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꺾일 것 이란 분석이 나오자,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자사 반도체 사업에 대한 굳건한 자신감을 과시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교영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장(사장)은 2일 삼성전자 주식 450주를 매입했다. 취득 단가는 1주당 243만 9856원으로 총 매입가격은 10억9793만 원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사장)은 87억7338만 원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 3500주를 사들였고, 정은승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도 509주를 12억9438만 원에 매수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3인방이 최근 보름 동안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하면 무려 111억6569만 원여지에 달한다.

진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인 건 2009년 2월 이후 9년 만이다. 당시엔 D램 반도체 세계 5위 업체 키몬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2년여간 이어진 ‘치킨게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던 때다. 당시 반도체연구소 D램 TID팀장으로 승진했던 진 사장은 승리를 확신하고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치킨게임의 최종 승자는 기술 경쟁력을 앞세운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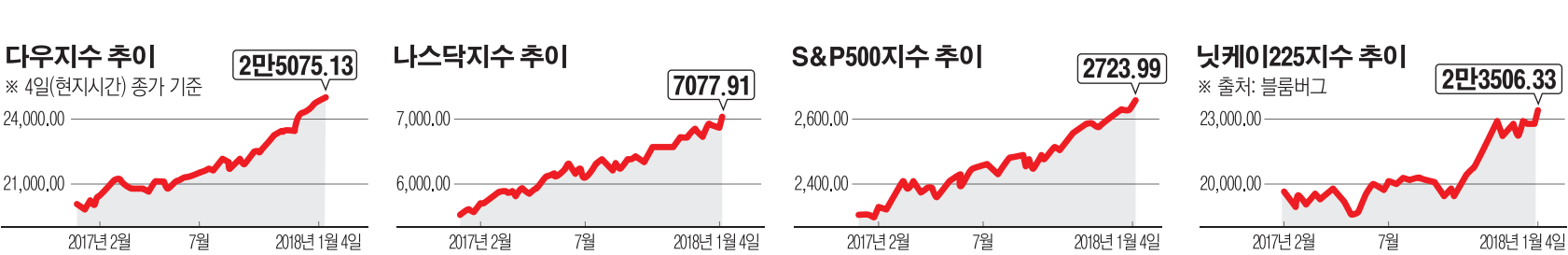
같은 맥락으로 진 사장의 이번 주식 매입 역시 최근 반도체 고점 논란에도 불

반도체 부문 CEO 3인방 열흘 동안 111억 주식 매입 2009년 ‘승자의 예감’ 재현 “호황은 계속” 자신감 피력

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미래를 밝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사장은 1997년 삼성전자 메모리연구소, 2014년 DS부문 메모리사업부 D램개발실장에 이어, 지난해 3월부터 메모리사업부장을 맡은 메모리 분야 전문가다. 지난해 11월 사장단 인사를 통해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반도체 사업에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의 기록을 분기마다 새로 썼다. 지난해 초 시작한 ‘반도체 슈퍼 호황’이 연말까지 이어진 덕을 토포하듯,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업황이 꺾일 것 이란 분석이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잇따라 삼성전자에 대해 ‘비중 축소’ 의견을 내면서 고점 논란에 불을 지폈다. 모건스탠리의 보고서가 나온 당일엔 삼성전자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업황과 관련해서는 고점 논란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메모리 업체들의 높은 마진과 고객들의 원가 부담, 늘어난 캐패스와 중국의 움직임 등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제한적 공급 증가 여력과 안정적 시바·데이터센터 수요를 고려할 때, D램과 낸드 모두 우려했던 반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올해 역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송영록 기자 syr@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4일(현지시간) 한 주식 트레이더가 '다우 25,000'이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웃음 짓고 있다. 이날 다우지수 종가는 2만5075.13으로 사상 처음 2만5000선을 돌파했다.
뉴욕/AP연합뉴스

‘25,000’ 찍은 다우지수… 올 글로벌 증시 ‘強勢場’ 예고

미국 뉴욕증지에서 다우지수가 4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2만5000선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새해 벽두부터 강세장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주요 증시는 새해 첫 주간인 이번 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FTSE 전 세계(All-world)지수는 3거래일간 2% 상승했다. 지수의 작년 상승률은 22%로 1993년 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4년 연속 최고치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61% 상승한 2만5075.13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4% 오른

美증시 새 역사 쓰자 中·日 등 주요국 증시도 ‘상승 릴레이’

2723.99에 마감했다. 2일 사상 첫 7000선을 넘은 나스닥지수는 이날 전일 대비 0.18% 상승한 7077.91을 기록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26% 급등한 2만3506.33으로 2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 상하이 지수도 3385.71로 0.49% 뛰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증시가 새해 벽두부터 강세장을 선보이며 증시 거품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작년 랠리의 중심이었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홀거 슈미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해 전망은 이날 지수가 말해주듯이 고무적”이라며 “작년 23·4분기 주가 상승 속도로 올해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파티는 시작됐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어느 나라도 성장 후퇴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버딘스탠더드인베스트먼트의 앤드루 밀리건 애널리스트는 “현재 증시 상승세에 가세하지 못한 나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작년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올해도 기업의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는 한 상당한 강세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앙은행의 부양책 철회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강세장이 소폭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다우지수는 25%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약 1주일 만에 2만 선을 돌파한 다우지수는 작년 한 해 71차례나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다우지수가 2만5000선을 뚫었다. 축하한다”고 썼다. 트럼프는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 없애겠다”고 덧붙이며 강세장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삼성, 인텔 제치고 ‘반도체 1위’

모바일 보급 확대 영향… 매출 전년比 52.6% 큰 폭 상승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보급 확대에 힘입어 인텔을 제치고 세계 최대 반도체 메이커 자리에 올랐다.

시장조사기업 가트너는 4일(현지시간) 1992년 이래 인텔이 독점해온 반도체 시장에서 지난해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17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612억1500만 달러(약 65조1633억 원)로 전년 대비 52.6% 증가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14.6%로 나타났다.

반면 인텔은 577억1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대비 6.7% 성장에 그쳤다. 점유율은 13.8%다. 가트너는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액은 약 4197억 달러로 전년보다 22.2% 늘었으며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시장 급성장의 호재를 누리며 인텔을 추월했다. 앤드루 노우드 가트너 부사장은 “메모리는 지난해 반도체 매출 성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으며 가장 큰 공급업체인 삼성전자가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인텔은 스마트폰·태블릿으로의 시장 이동과 PC 시장 부진에 점유율이 하락했다.

2017년 세계 반도체 제조사 순위 (단위: 100만 달러) ※ 출처: 가트너			
순위	제조사	매출액	시장점유율
1	삼성전자	61215	14.6%
2	인텔	57712	13.8%
3	SK하이닉스	26309	6.3%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3062	5.5%
5	퀄컴	17063	4.1%
6	브로드컴	15490	3.7%

SK하이닉스는 시장 점유율 6.3%로 3위를 차지해 2016년 4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 전년에 3위였던 퀄컴은 4.1%로 5위를, 5위였던 브로드컴은 3.7%로 6위를 차지했다.

다만 노우드 부사장은 “삼성은 모래 위에 있다”면서 현재 순위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기술 발전과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2019년에는 중국의 메모리 생산 능력이 향상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며 “브로드컴이 이번 인수를 확정하고 삼성의 메모리 매출액이 예상보다 떨어지면 내년에는 시장 점유율 3위로 내려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고객 “대출규모 언제부터 줄죠?”… 은행 “우리도 몰라요”

금융당국 ‘新DTI 능력개정’ 혼란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당시 신DTI(총부채상환비용) 시행 시점을 올해 1월로 잡아놨지만 감독규정 개정에 늦게 나서면서 다음 달 은행 창구에서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일선 창구 직원들과 고객들은 정확한 시행 날짜를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신(新)DTI는 연 소득에서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40~60%)을 따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해주는 규제다. 신규 주담대 원리금은 물론, 기존 주담대 원금도 분자인 빚 규모에 포함시킨다는 점이 현 DTI(기존 주담대)는 이자만 반영)와 가장 큰 차이이다. 이에 신 DTI가 도입되면 기존 주담대가 있는 차주가 추가로 주택 대출을 받을 시 대출

잔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DTI 도입을 위한 ‘금융업권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지난달 20일 올렸다. 예고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다. 예고기간이 끝난 뒤엔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규개혁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까지 모두 마쳐야, 그 이후에 은행 창구에서 신 DTI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금융위 의결이 이달 31일에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국은 시중은행 여신담당 쪽에 “이달 31일에 개정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준비하라”고 구두 지침을 내린 상태다.

DTI·新DTI·DSR 비교

구분	DTI (Debt to Income)	新DTI	DSR (Debt Service Ratio)
명칭	총부채상환비용	신총부채상환비용	총채적 상환능력 비율
산정방식	신규 주담대 원리금 + 기존 주담대 이자 + 기타대출 이자·연 소득	신규·기존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연 소득	신규·기존 주담대 +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연 소득
도입시기	2005년	올해 1월 말~2월	올해 하반기

문제는 당국이 마지막 날인 31일을 시행일로 잡고 촉박하게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 은행에 따라서는 31일 즉시 창구에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신DTI 도입에 따른 전산 변경과 직원 교육 등을 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1일은 규정이 변경되는 날짜이고, 창구에서 시행하는 건 사실 언제가 될지 모른다”며 “부채와 소득 산정 방식이 모두 바뀐 만큼 기존 DTI 적용 전산을 신DTI 요건에 맞게 바꿔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영업 창구에선 고객들이 “정확한 시행 날짜가 언제냐”며 문의를 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대응하지 못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대출 전담 고객센터 직원은 “아직 본점으로부터 언제 시행한다는 지침이나 날짜 등을 전혀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다른 은행 창구 관계자는 “신DTI의 정확한 시행 일정을 고객들이 전화로든 방문해서든 많이 물어보는데, 아직 지침을 받은 게 없어 우리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김보름 기자 fullmoon@



속도 경쟁이 初有의 ‘인텔 게이트’ 불렀다

반도체 칩 보안 결함 논란, IT업계 강타

인텔 칩서 해킹 취약한 ‘멜트다운’ 발전...AMD·ARM도 결함 보안 업데이트 하면 속도 30% 느려져...인텔은 알고도 은폐 보안 전문가들 “해커에게 악용될 우려...프로세서 교체 필요”

인텔에서 시작된 반도체 칩의 보안 결함 논란이 IT 업계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속도 경쟁이 사상 초유의 보안 결함 사태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10면

BBC에 따르면 전 세계 노트북 중 90%에 반도체 칩을 제공하는 인텔이 6개월 넘게 반도체 칩 결함 문제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파문이 커지자 인텔은 3일(현지시간) 보안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제기된 보안 결함 문제는 인텔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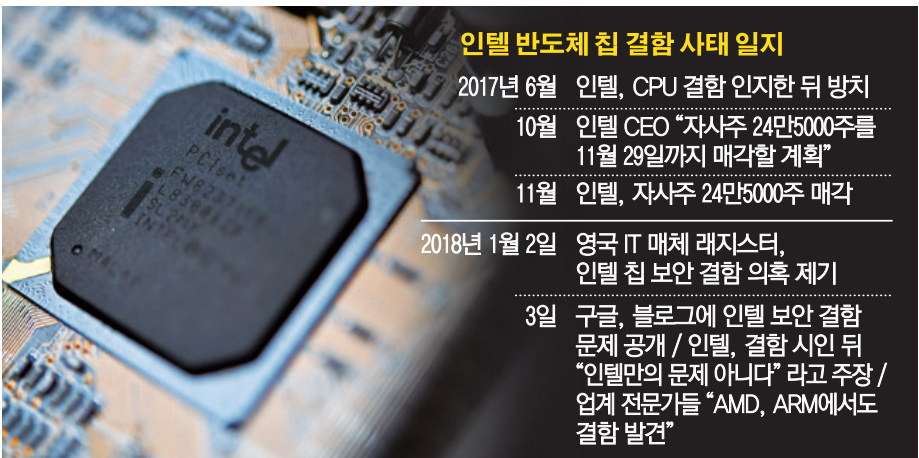
인텔의 주장대로 구글 연구원을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은 인텔의 경쟁사인 AMD, ARM에서도 결함을 발견했다. 이들은 해킹에 취약한 ‘멜트다운’과 ‘스펙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멜트다운은 인텔 칩에서, 스펙터는 인텔뿐만 아니라 AMD, ARM의 칩에서도 발견됐다. 멜트다운이나 스펙터는 해커들이 문제의 칩이 내장된 컴퓨터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쉽게 훔칠 수 있게 되는 등 해킹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다.

한 구글 연구원은 “인텔, AMD, ARM이

만든 반도체 칩에 심각한 보안 결함이 있으며 이 장치가 탑재된 기기를 사용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ARM은 직접 칩을 설계·판매하지는 않지만, 애플, 삼성전자, 퀄컴, 화웨이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만드는 기업 대부분이 설계 IP를 적용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반도체 칩 보안 결함은 PC와 스마트폰은 물론 아마존과 구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에도 심각한 위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은 반도체 결함을 막고자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했다. MS 대변인은 “인텔, ARM, AMD의 취약성에 노출된 윈도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보안 결함을 해결하고자 업데이트를 하면 칩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이다. CNN머니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업데이트 시 성능이 느려지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5년이 넘는 기기의 경우 더욱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업데이트 시 반도체 칩 속도가 30%가량 느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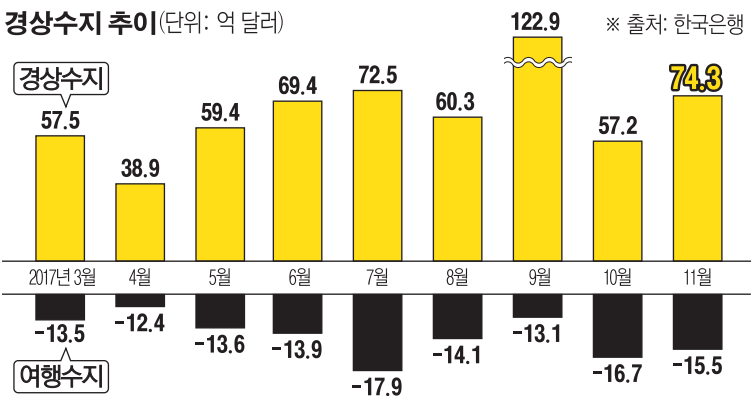


작년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있던 인텔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인텔이 결함 문제를 처음 인지한 것은 작년 6월이다. 그럼에도, 인텔은 제품을 계속 판매해왔다. 인텔은 “다음 주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대책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칩 제조업체와 비밀 협상을 이미 맺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ARM은 “이미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포함한 고객들에게 패치가 공유됐다”고 말했다. AMD는 “제기된 보안 위험이 칩을 탑재한 기기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영국국립사이버보안센터(NCSC)는 현재 발견된 보안 취약 문제가 해커에게 악용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NCSC는 모든 가정과 회사에서 PC를 쓰는 사용자들은 패치가 공개되는 즉시 패치를 설치해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글은 사용자가 보안과 관련해 알아야 할 점들을 블로그에 자세히 포스팅했다. 구글 측은 최신 보안 업데이트가 적용된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와 지메일은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만간 구형 크롬북 사용자를 위한 패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국 서리대학교의 앨런 우드워드 교수는 “패치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보안 문제가 해킹으로 악용된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이버 보안 문제를 연구하는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연구소는 보안 취약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프로세서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안 전문 업체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드미트리 알페로비치 공동 창업자는 “현재 보안 결함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칩이 출시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경상수지 69개월 연속 黒字 서비스수지는 不振 이어져

내국인 해외여행 늘고 中관광객 줄며 32.7억 달러 적자 글로벌 교역 회복·반도체 호조에 상품수지 114.6억 흑자

경상수지 흑자 폭이 2개월째 감소했다. 수출입 등 상품수지가 증가했지만 해외 여행객 증가와 건설 수출 감소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여전한 기 때문이다. 다만 올 전망치 780억 달러 흑자 달성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대판 해외 생산이 증가하면서 중계무역순수출은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는 74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9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흑자폭은 전년 동기 대비 7.5% 줄어 2개월째 감소했다.

상품수지 흑자는 114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96억9000만 달러 대비 18.3% 확대됐다. 수출이 514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3% 증가했고, 수입도 400억2000만 달러로 9.4% 늘었다. 중계무역 순수출 역시 1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2014년 6월(13억8410만 달러)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 증가 등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 폭은 32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30억 달러대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여행수지 적자 폭이 15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2개월 연속 10억 달러대 적자를 유지한 영향이 크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체계(사드:THAAD) 관련 조치가 완화하면서 중국인 입국자 수는 작년 7월(전년 동월 대비 -6.3%)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11월 -42.1%)이나 해외 여행 증가에 따라 출국자 수가 22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0% 증가했기 때문이다.

건설수지 흑자도 5억6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8억 달러에서 주춤했다. 이는 2015년과 2016년 연평균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51.1달러와 41.4달러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탓에 중동발 건설 수주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통상 건설 수주는 국제유가와 2년에서 2년 반의 시차를 둔다.

최정태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수출입이 모두 좋다. 수출은 반도체 시장이 호황인 데다 글로벌 교역 확대 등에 힘입었다. 스마트폰의 해외 생산도 호조세다. 수입도 에너지류 단가 상승과 반도체 제조용 장비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다”며 “반면 해외 여행 선호 현상에 여행수지가 악화했고 중동쪽 건설 수주가 좋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경상수지 흑자는 한은의 전망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27억3000만 달러 증가해 2개월째 상승세를 기록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남양주 토지 보상금 ‘집안싸움’ 벌이는 LH-도로公

구리~포천고속도로 사업에 LH 소유 택지 포함되며 갈등 80억 보상 요구했지만 도로公 목살에 소용...내달 첫 期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도로公)가 경기 남양주시 토지 보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두 곳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작년 9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남양주시 별내지구 택지 68필지(약 1만2000㎡)에 대한 8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첫 기일은 다음 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갈등은 LH 소유의 토지가 도

로공사가 추진한 고속도로 사업 구간과 겹치면서 불거졌다.

LH는 2011년 별내지구 주변 도로인 대로 1-6호선 사업(남양주 시도 17호선 확장)을 위해 이번에 문제가 된 토지를 취득했다.

그다음 해 도로공사가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을 승인받았는데, 해당 사업의 화정IC 접속부 구간이 LH 소유의 토지 구간과 중복된 것이다. 이후 2014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중복된 토지들은 구리~포천고속

도로 사업에 편입됐다.

이후 도로공사는 토지 보상을 이행하지 않았고 구리~포천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게 LH 측의 주장이다. LH가 청구한 손실보상금 80억 원은 당초 LH가 대로 1-6호선 사업 시행을 위해 해당 토지를 취득하며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액이다.

LH 관계자는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유지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하지만 LH 소유는 사유지로 분류된다”며 “여러 차례 보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 측은 LH가 진행

한 대로 공사의 부담을 덜어준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LH가 대로 1-6호선 사업 이후 해당 토지를 남양주시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구리~포천고속도로 공사 범위가 도로 공사보다 더 넓었고, LH가 20% 정도 공사를 완료한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후발주자로 참여해 (LH의) 공사 부담을 덜어낸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LH가 남양주시에 해당 토지를 무상 양도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보상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굿네이버스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다시, 봄

100만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을 찾습니다

아동 1000명 중 **275**명이 학대를 경험하지만 발견되는 아이는 단 **1**명...
274명의 아이들은 누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 김준수 의경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국민감시단'을 검색하세요.

국민감시단

검색

[100만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을 찾습니다]는 굿네이버스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는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국민 아동학대예방캠페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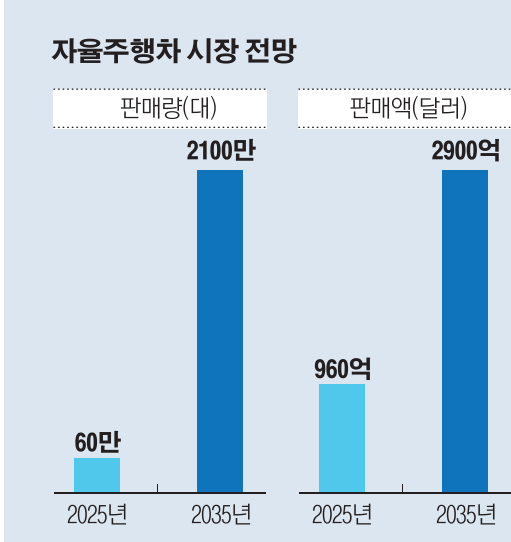
주최 : 굿네이버스

후원 :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車 ‘글로벌 同盟’ 가속페달..“2021년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자율주행차를 공동 연구할 파트너로 미국의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로라’를 선택했다. 현대차그룹이 오로라와 자율주행차 연구를 위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면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美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로라’와 맞손 ‘운전자 개입없이’ 레벨4 시스템 상용화 8일 CES서 ‘협업 프로젝트’ 공동발표 정의선 부회장 ‘글로벌 협업’ 노력 결실 모빌아이·피아트 등과도 기술협력 추진



현대차그룹 미래차 관련 협업 추진 현황

일시	업체	내용
2016년 4월	시스코	커넥티드카 네트워크 기술 개발
6월	바이두	통신형 내비게이션 및 대화형 음성인식 서비스 협력
2017년 10월	모빌아이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협력 방안 논의
11월	미쉐린	차세대 전기차 전용 타이어 공동 개발
12월	FCA	수소차 개발 관련 동맹 추진
2018년 1월	오로라	2021년 4단계 자율주행차 양산 목표로 한 공동 개발 착수



현대차그룹은 2021년까지 스마트시티에서 레벨4 수준(미국자동차공학회 기준)의 도심형 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를 위해 오로라와 협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력을 한층 높인다는 복안이다.

현대차그룹-오로라 프로젝트의 공동 계획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양웅철 부회장과 크리스 엄슨 오로라 최고경영자(CEO)가 공동 발표한다.

오로라는 창립 초기부터 세계 자율주행 기술 선구자들을 모아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 총책임자였던 크리스 엄슨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총괄 스티빙 앤더슨이 이 회사를 지키고 있다. 우버의 인식기술 개발 담당인 드류 배그넬도 오로라에 몸담고 있다.

이 회사는 자율주행 분야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각종 센서 및 제어기,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백엔드(Back-End) 솔루션 등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오로라와의 협업을 통해 3년 이내에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우선적으로 구현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양사의 목표는 2021년까지 자율주행 단계를 레벨4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레벨4 수준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할 수 있는 단계다.

현대차그룹과 오로라는 우선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스마트시티를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내 모든 도로에는 차와 도로가 서로 통신하는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시연하는 데 최상의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오로라 프로젝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와 제어 기술들을 공유하고, 통합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도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사는 이 프로젝트에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활용한 예정이다. 수소전기차는 대용량 전지 탑재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장거리 주행 등 장점이 있어 자율주행 시험차량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수소전기차에 자율주행 4단계 수준의 기술들을 탑재해 다음달 초부터 국내 고속도로와 시내도로에서 시연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과 오로라는 향후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 선도를 위해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이번 오로라와의 협업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과의 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차, 수소차 등 미래자동차의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력이 뛰어난 글로벌 업체들과 동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스라엘의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개발업체인 ‘모빌아이’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부터는 피아트와 수소차 개발을 위한 동맹을 타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인트 방식은 기존 현대차그룹의 기존와는 다른 ‘정의선 스타일’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간 현대차그룹은 1998년 기아차를 인수한

이후 대부분의 M&A를 자동차 이외의 산업에 적극 투자해왔지만 자동차 부문 산업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그룹 내에서도 글로벌 동맹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부문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사들이 합종연횡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현대차그룹도 이러한 방식을 적극 추진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foto@

“외국인 직접투자” “한중 FTA 후속협상으로 對韓 FDI 36% 확대”

의견수렴 공청회... “실질 GDP·무역·투자 모두 증가, 상호 호혜적 협상될 것”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후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15년간 약 36%까지 확대될 것이라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대(對)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전 관련법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성한경 교수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연산일발균형(CGE) 모형을 이용해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비스교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해 서비스 무역장벽을 설정하고 모형 내에 투입했다.

국가분류는 한국과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기타국가를 고려했다. 산업분류는 상품 3개, 서비스업 11개로 분류했다. 상품은 쌀, 농업, 제조업이다. 서비스업은 공공, 건설, 유통, 육운, 해운, 항공, 통신, 금융, 사업, 오락 등이다. 생산요소 분류는 노동, 자본, 토지로 분류했다. 시나리오로는 한미·한EU·한중 FTA 발효와 서비스 교역장벽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국내총생산(GDP)·노동·인구 변화를 대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2016년 OECD STRI를 활용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거시경제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8~2022년 한국의 실질 GDP는 0.0002~0.0093% 증가했다. 2023~2027년에는 0.0004~0.0152% 늘었다. 2028~2032년에는 0.0004~0.0186% 늘었다.

고정효과 모형의 결과를 보면 FTA로 인해 중국의 대(對)한국 FDI는 향후 15년간 약 36.34%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5년(2011~2016년) 평균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향후 연평균 10억500만 달러 늘 것으로 추산됐다. 10년 누적 투자증가 예상액은 54억200만 달러 규모였다. 15년 누적 증가액은 81억3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측됐다.

성 교수는 “한·중 FTA 후속협상은 상호 호혜적인 협상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불만했던 경제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질 GDP, 무역, 투자가 모두 증가해 한국에 긍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결과는 모형과 다소의 가정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수치보다는 전체적인 결과의 방향성에 관심을 두고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협상 결과와 협정 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는 최근의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대한국 투자 감소세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정필 기자 roman@

Sulwhasoo

부드러움 속에 흐르는 강인함,
독보적인 격을 지나다

설화수 맨 본운에센스

나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남자의 피부는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설화수의 안티에이징 정수가 담긴 정량단위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
주름, 탄력, 칙칙함을 한번에 케어해주는 설화수 맨 본운에센스.
시간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남자의 피부를 완성해줍니다.

*설화수 플레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레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文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 도움”…트럼프 “문 대통령 100% 지지”

南北대화, 韓·美간 ‘엇박자’ 없다

미국 쪽 제안으로 양국 정상간 통화
평창 올림픽 기간 군사훈련 중단
트럼프 “가족과 고위대표단 보낼 것”
남북 해빙무드에 우려감 불식시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갑작스런 남북 유화 제스처로 불거진 한국과 미국 간의 ‘엇박자’ 우려가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로 불식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고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알려 달라”며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혀 남북 당국회의가 이뤄진다면 남북 해빙무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풀이된다.

운영чан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화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간 대화 의지를 밝힌 이후 처음 두 정상 간 통화여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무엇보다 이번 통화는 김정은이 미국과는 계속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국과는 대화하지는 일종의 ‘통남봉미(通南封美)’ 전략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하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 남북대화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양국 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평창올림픽 기간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말~3월 초 시작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등 한·미 합동 훈련은 패럴림픽 기간과 겹쳐 올해 하지 않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는 남북 당국 회의의 의제설정 폭을 넓힐 수 있게 돼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전환점을 가질 수 있게 됐고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게 됐다는 평가다.

문제는 북한이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만일 북한이 평창올림픽 이후 추가 도발을 한다면 대화 국면의 남북 관계가 다시 긴장상태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한·미 FTA 1차 개정협상 탐색전

오늘 워싱턴서 시작…유명희 수석대표 “이익균형 주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이 5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번 첫 개정협상은 ‘미국 우선’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와 농·축산물 분야 등에서 미국에 유리하도록 강력한 개정 압박을 할 기세여서 양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4일(현지시각)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익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비과세 조치 분야 등에서 협상 의제를 정하고 본격 협상에 돌입한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자동차와 농업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에서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 등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점쳐진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우리 측에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수입쿼터제 물량 확대, 위생검역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밝힌 한·미 FTA 개정 협상 추진계획을 보면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개방 불가’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우리 측에 불리하게 체결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선 등을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수석대표로는 우리 측에서 유 국장, 미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공식협상에 참석하고자 4일(현지시간) 버니자 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측에선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맡고 있다.

개정 협상은 전면 개정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는 부분 개정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하려면 자국의 무역촉진관한법(TPA)에 의거, 협상을 시작하기 90일 전에 협상 개시 의사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곽도훈 기자 sogood@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조류인플루엔자)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새해 정부 업무보고, 文대통령 아닌 李총리가 주재

18일부터…꼼꼼한 점검·부처간 유기적 협조 ‘책임총리’ 힘 실려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문재인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총리제 강화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의 ‘2018년 정부 업무보고’는 이 총리 주재로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총 8차례 열리는 업무보고 주제는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18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22일)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및 국민건강 확보, 23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24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25일) △교육·문화 혁신(29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30일) 등이다.

23일의 경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차례 열린다. 업무보고 시간은 주제별로 2~3시간 진행된다. 부처의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실시하고, 이후의 시간은 부처 간 장벽을 깬 실무형 토론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업무보고는 장관(급) 기관과 주체와 관련이 있는 차관(급) 기관 등 30개 기관이 맡는다. 또 44개 중앙행정기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주제별로 보고기관 외에 관련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 부처에서 요청한 연구

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민간전문가 등을 초청해 1차례당 100명 내외가 참여할 전망이다.

이 총리가 국정 의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조를 촉진해, 국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이 총리는 21년간의 기자 생활과 4선 국회의원의 전남지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 같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부업무 전반과 부처 간 장벽 등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사로 꼽힌다.

이번 정부의 책임총리제 강화 기조 속에서 지난해 5·9 조기 대선으로 문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업무보고를 이 총리가 받게 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정필 기자 roman@

김영춘 해수부 장관 “부산시장 출마 전혀 생각없다”

해양진흥공사 설립 7월까지 마무리

김영춘(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올해 7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에 집중해서 한국해양산업의 부활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물동량은 105만TEU에서 한진해운 파산 이후 47만TEU로 줄어들었다”며 “원양 정기선 선박 보유량은 2022년까지 한진해운 파산 전인 100만TEU 규모 수준으로 회복시킬 방침”이라며 이같이

이 말했다.

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법정자본금 5조 원 규모로 올해 7월 설립될 예정이다. 해운선사들의 선박·터미널 확보를 위한 투자·보충,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박 매입 후 재유선, 채권 매입 등의 금융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해운거래와 선사경영안정·구조개선을 지원하고 비상시 화물운송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김 장관은 “공사가 설립되고 나면 공사의 전반적인 계획과 지원하에서 해운산업 전체를 놓고



5개년 계획 등 개별사 지원도 하고 통합이 필요하면 통합도 하고 구조조정 필요하면 구조조정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가 해야 할 일 중에 기존 해운선박, 항만 이런 것들도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해서 고도화시키고 첨단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통해 2018년도에는 새로운 대책까지 포함해서 해양산업의 고도화 기폭제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상 일이 어찌 될지는 모른다”며 여지를 남겼다.

곽도훈 기자 sogood@

강원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 서울의 68배

진선미 민주당 의원, 소방청 제출 자료
농어촌·도시 지역 최대 128배나 차이

농어촌 지역 소방관이 도시지역 소방관보다 최대 128배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국토면적은 0.09㎢이지만 강원도 소방관 1인 담당 면적은 6.11㎢로 약 68배 더 넓었다. 특히, 이번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많은 희생자를 낸 제천지역은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이 6.85㎢로 강원도 평균보다 더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소방관은 4만4792명으로 1인당 평균 담당 면적은 2.23㎢였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80% 규모다.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면적이 가장 작은 지자체는 서울이다. 이어 부산(0.26㎢), 대구(0.4㎢), 대전(0.41㎢), 광주(0.42㎢) 순으로 조사됐다.

정용욱 기자 dragon@

다.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1.29㎢로 가장 많았다. 반면 담당 구역이 넓은 지역은 강원도에 이어 경북(5.7㎢), 전남(5.12㎢), 충북(4.24㎢), 전북·경남(3.8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지역 안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소방관 부족 현상이 극심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단체인 강원도 홍천군은 소방관 1명이 11.59㎢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제천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농어촌 지역의 소방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화재 대응을 적시에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은 인구뿐 아니라 물리적 면적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증원을 통해 도시·농촌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특정직 소방공무원을 4821명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선발 인원 2933명보다 1888명 늘어난 규모다. 가장 많이 증원되는 곳은 경기(629명)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AI 위험성도 대비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정책 총괄 필요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힘쓰는 가운데 AI(인공지능)에 대한 통합적 위험정책연구는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인공지능 위험정책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AI 위험성 연구는 예측하지 못한 기술의 위험”으로만 제한적으로 다루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AI 위험성을 구체적 수준에서 ‘실제적 위험’으로 인식한 것은 최근 일”이라며 “AI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에 따른 구체적인 사전적 대비나 사후적 대응방안 연구가 거의 없어 기술 발전에 제도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보고서는 미래 신기술이 가져올 위험대응 전략과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 기술정책 총괄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했다.

보고서는 “향후 AI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한 윤리, 규범, 법제도, 거버넌스 변화와 위험성 평가의 프레임 워크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AI 위험성에 대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사전예방원칙과 복원력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 거버넌스를 다뤘다. 사전예방원칙은 위험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잠재적 파급 효과가 높을 경우 선제적 대응 조치를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복원력은 재난이 발생한 후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이다.

사전예방원칙 정책과 관련해 보고서는 “AI 기술위험은 경제적 관점보다 실제 정책 도입 가능성 여부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위험발생이 감지되면 한시적으로 개발을 중지하는 모라토리엄 도입이나 AI 위험비용 및 책임 체계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원력 제고 정책 방안에 있어서는 ‘사회적 위험커뮤니케이션 확대 정책’을 최우선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설계 단계부터 AI윤리강령, 안전표준 및 인증제도, 기술 보안성과 신뢰성 강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민사소송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 더 늘어난다

소송비용 포함된 변호사 보수 한도 상향
승소측에 보전해줄 금액 증가로 이어져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가 11년 만에 현실화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인지대, 감정비용, 검증비용, 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된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이 중에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100% 보전받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 원짜리 소송의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 비용을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가 2000만 원까지인 변호사 보수 한도가 10%로 변경되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구간 별로 변호사 보수 한도가 1~2%씩 감소한다. 기존에는 1000만 원까지 8%를 기준으로 구간 별로 변호사 보수 비율이 1%씩 감소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무분별한 소송 제기나 상소 남발을 막는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비용은 비슷한 소송

에서도 변호사 보수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우려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제 사정 변화 등을 고려해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를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나 사건의 난이도 등과 관계없이 변호사 비용이 정해지고,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당사자들이 지출한 금액과 큰 차이가 난다는 게 이유였다.

집행부 구성원들은 이 정도면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변협이 제시한 변호사 보수한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 번에 큰 변화를 줄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입법예고를 즉각 반겼다. 대한변협 측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 비용에 포함되는 인지대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지대는 심급이 올라갈수록 소송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기존보다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창업의門’ 향하는 사람들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藥局 야간·공휴일 조제로 할증, 적극 알려야”

권익위, 관계기관에 상시홍보 권고

약국 조제로가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더 비싸지만, 대부분 약국들은 이 같은 사실을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상시 홍보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약국 조제로는 야간 시간

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30% 가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권익위에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일례로 A씨는 저녁에 약국에 갔는데 병원 처방약 중 한 가지가 없어서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먼저 약값을 계산했다.

이후 A씨는 야간 가산료가 있다고 알려줬다면 다음날 결제했을 텐데, 가산료 설명을 듣지 못했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 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약국들이 게시물이나 LED 전광판 등을 이용해 자율 안내하도록 지역 약사회에도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마트와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교장 公募制’ 논란, 둘로 갈린 교원단체

교총 “무자격 교장 대량 양산” 비판
전교조 “학교 민주주의 실현” 환영

교육부가 발표한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자격 교장을 대량 양산한다고 비판하고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실력있는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교총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 청원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공모제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하운수 교총 회장은 집회에서 “교감·교장이 되려면 교사가 된 뒤 최소 25년가량 근무하고

연수·연구 등을 통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공정성과 교직 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5년 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답임·보직교사와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 학교에 가려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반면 전교조는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교장선출 보직제를 도입하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사들이 직접 교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자격보다 실력을 요구하는 교장공모제를 전체 학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좋은교사운동도 “교장공모제는 학교 개혁을 가로막는 현행 교장승진제를 개혁하는 정책”이라면서 “전 학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기존 승진제도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경우 현장에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수십년 단계를 거쳐 교장 승진을 준비해온 교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朴 전대통령, 국정원 特活費로 옷 사고 氣치료 받고

檢, 최순실에게 흘리간 정황도 포착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개인 의상실 운영 비용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에게 흘리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5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별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4년 4월까지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서 매달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상납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측에 특별비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서 2014년 7월~2015년 2월 매달 1억 원씩 총 8억 원을

받았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2016년 7월 직접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매달 1억~2억 원씩 총 1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청와대 내에서 국정원 특별비의 존재는 문고리 3인방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관이 돈을 관리하는 ‘총무’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윤전주·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다.

이새희 기자 shys0536@

국세청, 다스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기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 경주 본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 수십 명을 다스 본사에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다스의 세금 탈루, 차명 계좌 관리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2018 한양 CYBER 미래경영 아카데미 1기 모집

미래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소기업 CEO 교육

교육기간
2018. 3. 14 ~ 2018. 6. 27
(매주 수 2강좌, 18:00~21:30)

교육장소
전반기 : 리베라 호텔
후반기 : 한양대학교 HIT

접수기간
2017. 12. 13 ~ 마감 전까지

접수문의
중소기업미래경영원 사무처
Tel: 02-6204-7600
E-mail: fmis@fmis.or.kr

중소기업미래경영원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CURRICULUM

- 미래경영**
 - 경영환경 변화 속의 적합한 기업경영
 -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 함양
 - 미래과학기술의 발달에 맞춘 경영전략 수립
- 창조융합 혁신경영**
 - 창조적 경영전략을 통한 경영혁신
 - 창의적 가치와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리더십 육성
- 감성문제 경영**
 - 기업경영에 감성문제를 접목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 문화예술적 인식과 시각을 통한 전문 경영인의 감성 리더십 강화
- 장수기업 경영**
 - 기업경영전략에 대한 통찰력 함양 및 조직문화 설계
 - 장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사례 습득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kg의 장비를 메고
불과의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에게
우리의 기술이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영상전송으로 화재범위와
경로를 추적하는 소방드론

SK텔레콤은 강원소방본부와 협약을 통해
소방드론과 바디캠을 소방관들에게 제공하고
5G 기술로 구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5G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하니까요

미래 생활의 중심 | SK telecom



재난현장상황을 종합상황실에
송출하는 바디캠

SEE YOU TOMORROW!

산업폐기물 99.9% 재활용...버릴 것 없는 LG화학 미시간 공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 美 NSF ‘매립지 없는 공장’ 인증 받아
97.4% 재사용·2.5% 에너지화 시설서 처리...1% 미만 매립
자체개발 폐기물 시스템으로 관리...코발트·니켈은 100% 처리

LG화학 미시간 공장이 위생안전기관(NSF)로부터 ‘매립지 없는 공장’ 인증을 받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위치한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1% 미만만 매립되고 총폐기물의 50% 미만만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WtE·Waste-to-Energy)에서 처리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공식적으로 매립지 없는 공장(Landfill-Free Facility)으로 지정됐다.

NSF 인터내셔널은 1944년 인구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중 보건 및 환경 분야의 표준 개발, 제품 인증, 시험, 감시, 교육 및 위험관리 등을 수행한다.

LG화학 미시간 관계자는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의 97.4%는 재사

용되며, 2.5%는 WtE 시설에서 처리되고 1% 미만의 폐기물만이 매립된다”고 설명했다.

니 카사노스 LG화학 미시간 사장은 이번 NSF의 인증에 대해 “이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부분”이라며 “향후 LG화학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립지 없는 공장 시스템 도입은 미시간 공장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LG화학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시스템은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만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생산 중 발생한 불량품들이 대다수다.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이 산업폐기물로 나오는데, 리튬이온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배터리 3사(LG화학·삼성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위치한 LG화학 공장.

사진제공 LG화학

SDI·SK이노베이션)의 공장에선 지속가능경영의 측면에서 폐기물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LG화학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LG화학 지속가

능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LG화학은 사업장별로 폐기물 발생원을 파악해 발생량을 감량하고 재활용을 하는 등의 폐기물 전략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16년 보고서에는 LG화학의 재활용률이 2014년도 67%, 2015년도 73.2%, 2016년도 67%라고

명시돼 있다.

니켈, 코발트 같은 지정폐기물의 경우 업체를 통해 폐기하게 돼 있다. LG화학을 비롯해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모두 지정폐기물은 폐기업체를 지정해 시행 중이다. 삼성SDI는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코발트와 니켈 폐기물은 100% 재활용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SDI의 2015년도 폐기물 재활용률은 96%에 달하며 매립률은 4%를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자체 개발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 폐기물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발생한 폐기물은 자가 매립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는 수탁 능력이 검증된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LG화학의 환경적 지속가능경영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은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당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LG화학이 앞으로 100년을 넘어 영속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지속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시스템 도입에 관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류정훈 기자 jungn216@

새해 벽두 공격경영 LCC는 팽창 중

국내 8곳 항공기 도입 26대 달해
신규수요 발굴 노선확대 적극 나서

국내 저가항공사(LCC)들이 새해부터 신규 수요 발굴을 위한 노선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7일 일본 규슈 오이타에 신규 취항한다. 제주항공도 6일 일본 규슈 최남단 가고시마에 인천발 노선을 주 3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할 예정이며 진에어는 2일 새해 첫 신규노선으로 인천~조호르바루 노선 취항식을 진행했다.

올해 대규모 항공기 도입에 나서는 LCC들의 노선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 8개 LCC가 올해 새로 들어올 항공기는 무려 26대에 달한다.

특히 LCC들은 국내선이나 가까운 인가노선으로 제한됐던 노선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해외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신규 노선을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LCC들이 개선되는 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장에서 벗어나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신규 취항지 개발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 수요를 확보, 인천공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환승 수요 창출도 잡겠

다는 복안이다.

이에 LCC 1위인 제주항공은 기존 인기 노선에서 벗어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노선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나트랑(냐짱) 노선에 운항을 시작했으며 12월 27일에는 인천~호찌민 노선 신규 취항식을 가졌다. 또한 타이완 남서부 항구도시 가오슝(高雄)에 신규 취항하기도 했다. 가오슝은 남부 타이완의 최대 도시로 제주항공의 인천~가오슝 노선은 국적항공사 가운데 단독 노선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현재 6개의 국내선을 포함해 13개 국가 36개 도시 4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취항 가능한 모든 도시를 검토해 신규 노선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에 이어 두 번째로 증시 상장에 나선 진에어는 국내 LCC 최초로 중국 마카오, 라오스 비엔티안, 일본 기타큐슈 노선을 개발해 취항한 바 있으며 국내 LCC 중 유일하게 하와이 호놀룰루, 호주 케언스 등 장거리 노선 개척에도 나섰다. 2019년에는 동유럽 노선 취항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에어서울이 지난해 인천~칼리보 노선에 단독 취항하며 새로운 하늘길을 열었으며 티웨이항공은 대구~방콕 노선에 신규 취항한 바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포스코 강판 썼다고 반덤핑관세 3배나 높여

국내 철강업체 ‘부글부글’

현대제철 6.23% 관세 19.42%로
美 상무부, 연례제심 예비판정
업계 “정부차원 대응책 마련을”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에 반덤핑관세를 6%에서 19%로 세 배나 높이는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국내 철강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포스코 열연강판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s)’ 조항에 따른 것이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 송유관(WLP)에 부과했던 6.23%의 반덤핑관세를 19.42%로 상향

하는 연례제심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2015년 12월 현대제철(6.23%)과 세아제강(2.53%)이 국내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송유관을 수출하고 있다면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 상무부는 한 번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계속 필요한지, 매년 시장 상황과 수입 물량 등을 검토해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다시 정한다. 송유관은 이번이 첫 연례제심이다.

미국이 현대제철에 부과한 관세의 근거는 ‘특별시장상황’에서다. 수입국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때 수출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 조항이다.

그러나 특별시장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는 상태다. 사실상 미 상무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무기인 셈이다. 지난해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정 부보조금을 받았으며 ‘특정시장상황’을 적용한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

9일 막 오르는 美 가전쇼 ‘CES 2018’

삼성 vs LG, 10년 만의 ‘로컬 디밍 TV전쟁’ 불붙는다



삼성 QLED TV 'Q9'.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TV 화질 기술인 ‘로컬 디밍(Local Dimming)’을 놓고 10년 만에 다시 대결을 펼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미국과 유럽에서 ‘다이렉트 풀 어레이 엘리트(Direct Full Array Elite)’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삼성 퀀텀 다이렉트 디밍(SAMSUNG Quantum Direct Dimming)’과 ‘삼성 퀀텀 디밍’ 등으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로컬 디밍이란 화면 분할 구동을 뜻한다. 백라이트를 다수의 영역으로 구분, 휘도를 영상 신호와 연계해 영상의 어두운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은 백라이트를 끄거나 빛을 줄이고, 밝은 영역은 휘도를 높여줌으로써 명암비 및 소비전력을 대폭 개선한 기술이다.



LG전자 모델이 ‘쌍류 TV’ 라인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삼성전자 ‘QLED TV’

美·유럽 ‘다이렉트 풀 어레이...’

국내선 ‘퀀텀...’ 상표권 출원

직하형 기술 채택 본격 움직임

삼성전자는 최근 몇 년간 프리미엄

제품에 화면 좌우측 혹은 상하단에 발광다이오드(LED)를 배치하는 ‘예지형’ 로컬 디밍 기술을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상표권을 출원한 것에 대해 올해 QLED 시리즈에 LED 광원을 화면 전체에 고루 배치하는 ‘직하형’ 로컬 디밍 기술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LG전자도 프리미엄 LCD TV인 ‘나

LG전자 ‘나노셀 TV’

슈퍼 울트라 HD TV 출시 계획

나노셀에 ‘풀 어레이...’ 기술 추가

LCD진영 화질기술 경쟁 가속화

노셀 TV’의 최상위 모델에 예지형 로컬 디밍을 채택한 데 이어 올해는 직하형을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LG전자는 이달 초 나노셀 기술에 ‘풀 어레이 로컬 디밍’ 기술을 추가한 슈퍼 울트라 HD TV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7년을 전후로 로컬 디밍 기술을 놓고 치열한 자존심 경쟁을 벌인 바 있다. 두 회사

는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8’에서 직하형 로컬 디밍을 적용한 프리미엄 TV 신제품을 나란히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만에 또 한번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독일 ‘IFA 2017’에서 HDR(하이다이내믹레인지) 화질 기술 경쟁을 펼친 데 이어 4개월 만에 새로운 전선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가 프리미엄 TV시장에서 입지를 서서히 넓히는 가운데 LCD TV 진영에서도 이에 대항하기 위한 화질 기술 경쟁을 가속화하는 분위기”라면서 “올 초에는 로컬 디밍 경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연민 기자 yerin2837@

제빵기사 제3노조 결성, 파riba게뜨 直고용 어디로

해피파트너즈 노조, 강남구청서 지난달 신고증 받아
합작법인 통한 독자노선 입장...양대 노총과 차별화

파riba게뜨 본사, 가맹점주, 협력업체 3자의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 기사들이 제3노조를 결성하면서 제빵 기사 직접고용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5일 고용노동부 및 노동계에 따르면 해피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8일 서울 강남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았다.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설립 한 달 만에 조합원 수가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파riba게뜨 본사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계열 제빵기사 노조와 고용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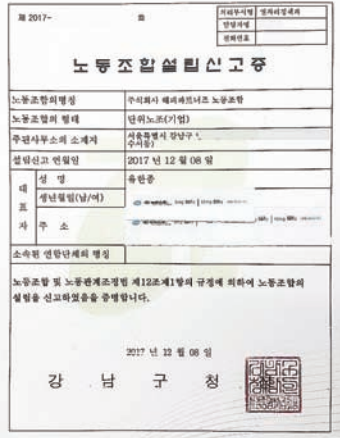
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성된 해피파트너즈 단위(기업)노조는 본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양대 노조와 달리 합작법인을 통한 제빵기사 고용을 주장하며 독자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해피파트너즈는 파riba게뜨, 가맹점주, 제빵 기사, 협력업체 등 4개의 축으로 구성된 회사다. 우리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빵 기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과 지위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

다”며 “앞으로 조직 확대 및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양대 노조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riba게뜨 가맹본부와 민주노총 노조, 한국노총 노조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이어 올해 3월 2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양대 노조는 제빵 기사 직접고용 원칙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피파트너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파riba게뜨 역시 직접 고용 불가 원칙에 변함이 없었다.

만약 파riba게뜨 사태가 노사 간 타협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24일 파riba게뜨 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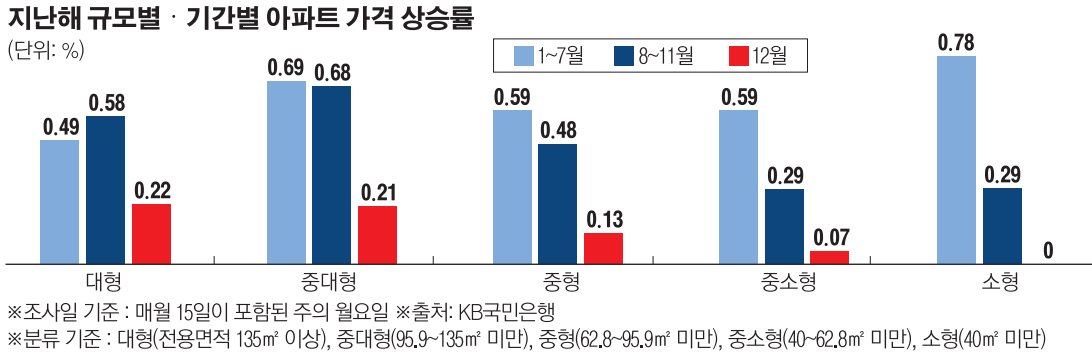
해피파트너즈 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8일 강남구청에서 받은 노조 설립 신고증. 연합뉴스

시 취소소송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지만 최종 판결까지 대략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태 해결은 최악의 경우 내년까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여러 채보다 ‘뚝뚝한 한 채’ 投資 트렌드

8.2대책 후 큰 게 더 올랐다



**大型 7월이전 0.49%→이후 0.58% 쑥
小型은 0.78%→0.29% 상승폭 둔화**
국토부 최근 ‘세대구분형’ 규제 완화
대형 아파트 임대사업 활성화 기대도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 이후 중대형 이상 크기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중소형 이하 크기는 시원찮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이상 크기가 희소해진 동시에 ‘뚝뚝한 한 채’에 투자하는 흐름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국토부가 최근 집 한 채를 고쳐 큰 집과 작은 집으로 나누는 ‘세대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형 아파트를 이용한 임대사업도 기대가 모인다.

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규모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형(전용면적 135㎡ 이상)이 11월 대비 0.22% 오르며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나타냈다. 다음은 0.21% 오른 중대형(95.9~135㎡ 미만), 0.13% 오른 중형(62.8~95.9㎡ 미만) 순이다.

반면 소형(40㎡ 미만)은 11월과 가격 차이가 없어 가장 낮은 상승률인 0%를 기록했다. 이어서 중소형(40~62.8㎡ 미만)이 0.07% 오르며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클수록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셈이다.

중대형 이상 아파트의 강세에는 희소성 영향이 크다.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최근 5년간 전국에 분양된 아파트의 약 90%가 전용 85㎡ 이하였다. 그만큼 중대형 이상 크기의 아파트 물량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처럼 부족해진 중대형 이상 아파트를 다시 찾

도록 한 원인에는 정부 규제가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고자 소형 아파트를 처분하고 넉넉한 크기의 아파트 한 채로 쏠리는 이른바 ‘뚝뚝한 한 채’ 트렌드가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양도세 중과가 예고된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아파트 크기별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소형이 가장 크게 오른 0.78%, 중소형은 0.59%를 기록했다. 반면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8월부터 11월까지 소형과 중소형은 0.29% 오르는 데 그쳤다. 대형의 경우는 1~7월 상승률이 0.49%였다가 8~11월에는 0.58%를 기록하며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큰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핵심 지역의 한 채로 투자가 쏠리는 트렌드의 연장 선상”이라며 “전국에서 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서울 핵심 지역 쏠림 현상이 빚어낸 통계의 합성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벽으로 구분해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세대 구분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세대 구분을 위한 공사를 ‘증축’에서 ‘대수선’으로 완화한 것이다. 증축은 단지 입주민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지만 대수선은 해당 동에서만 3분의 2가 동의하면 된다.

이에 따라 대형 아파트를 이용한 임대사업 활성화에 기대가 모인다. 점차 늘어나는 노인 인구가 보유 주택을 세대 구분하고 임대해서 노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세대 구분한 주택은 1주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로 인한 규제를 피하는 방법으로도 주목된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아파트 값은 지하철 연장선을 타고...

5호선 하남·검단산, 8호선 남양주·별내 등 거래가 오르고 완판
7호선도 청라·양주까지...건설사, 신설역 주변지역에 분양 채비

수도권 광역 교통망이 대폭 개선되면서 지하철 연장선 개통예정 인근에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가 인기가 있다. 외곽지역에 위치한 탓에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저평가돼 왔지만 연장선이 들어서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하철 연장선이 잇따라 개통되거나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연장선으로 지하철 5호선을 예로 들 수 있다. 5호선은 기존 방화역에서 마천, 상일동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2018년에는 경기 하남시를 관통해 검단산까지 이어지는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개통이 가시화되자 하남시 집값이 급등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하남연장선이 착공에 들어간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하남시의 집값은 전용면적 3.3㎡당 1136만 원에서 1543만 원으로 35.82%가 올랐다.

또 다른 연장선은 지하철 8호선이다. 경기성남과 서울강동을 잇는 8호선은 모란역에서 암사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다. 2022년에는 경기 남양주시를 통과해 별내역까지 이어지는 별내선(8호선 연장)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별내선이 지나가는 다산신도시는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이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붙어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들 지역은 분양 열기도 뜨겁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하남시에서는 미사역이 들어서는 미사지구의 미분양 물량은 18가구로 사실상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도 마찬가지다. 별내선 다산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는 지난해 9월 청약결과 평균 6.8대 1로 1순위 마감하며 한 달도 채 안 돼 완판됐고, 11월에 분양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도 평균 8.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계약 3일 만에 완판됐다.

여기에 지하철 7호선도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뻗어나갈 계획이며 북쪽으로는 양주신도시까지 연결된다. 7호선 연장선 수혜지인 청라국제도시의 마지막 분양 단지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는 지난해 7월 청약 결과 평균 14.37대 1로 1순위 마감했다.

이에 건설사들도 지하철 연장선 인근에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에는 HMG가 시행하고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민락2지구 제일풍경채 센텀’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7호선 연장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 수혜지인 하남에서는 대우건설이 하남시 현안지구 1블록에서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고, 인천지하철 1호선도 연장선에서는 송도 랜드마크시티역(2020년 개통예정) 인근에서 대우건설이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 중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개통 예정인 지하철 연장선 일대 신규 분양 단지						
연장노선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가구수	분양시기	시공사
7호선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7~1블록	민락2지구 제일풍경채 센텀	64. 84	288*	1월	제일건설㈜
5호선	경기 하남시 현안지구 1블록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52. 59	404	분양 중	대우건설
인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	인천 검단 대방노블랜드	84. 109	1281	3월	대방건설
1호선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2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22~48	1990*	분양 중	대우건설

*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출처: 각 사

‘과천4’ 물밑경쟁 스타트...현대·대우·GS·현산 ‘눈독’

3월 1일 조합설립인가 계획...건설사들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할지 관심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도 과천의 재건축 유망주인 과천주공4단지의 수주전이 임박한 가운데, 수주를 위한 대형 건설사들의 물밑 작업이 치열해지고 있다.

5일 과천주공4단지 조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추진위 측 관계자는 3월 1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수주전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이다. 각각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위, 3위, 6위,

8위 업체로 국내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이 이 수주전에 총집결했다.

조합원들은 재건축하는 단지에 ‘디에이지’ ‘푸르지오 써밋’ 등 기존 아파트 브랜드보다 급이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적용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지난해 3월 4단지 인근인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대우건설이 프리미엄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을 내세워 수주에 성공한 것에서 비롯된 학습효과로 풀이된다. 현재 재건축 착공에 들어간 과천주공1단지의 재건축 이전 크기는 840가구 규모였고, 과천주공4단지의 경우 1110가구 규모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디에이지’ 브랜드를 앞세워 4단지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은 과거 고배를 마셨던 과천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디에이지’ 브랜드를 내세운 바 있는 데다, 과천의 3.3㎡당 분양가가 3000만 원을 넘어서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에 부합하는 입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수주전에는 참여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푸르지오 써밋’ 브랜드의 적용 여부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별도로 없는 ‘자이’의 GS건설과 ‘아이파크’의 현대산업개발 역시 본격적인 수주전이 시작되면 입찰을 타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용 기자 cogito@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늘며... 2순위 계좌수, 1순위 추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의 2순위 계좌수가 1순위를 앞질렀다. 전체 주택청약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1순위 자격 요건 강화로 기존 미충족 가입자가 재분류된 영향이 더해졌다.

5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2순위 주택청약은 1045만7613좌로 1순위 계좌수 1043만9146좌를 웃돌았다. 2순

위 계좌수는 작년 동기(872만7340좌)보다 19.8% 증가한 반면, 1순위 계좌수는 같은 기간(1056만 6147좌) 1.2% 감소했다. 2순위 계좌수가 1순위를 앞지른 것은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의 강화 영향이 컸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1순위 통장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 1순위 통장은 가입기간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기준을 적용했

다. 그러나 요건 강화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청약에 대한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로 강화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주택청약은 부동산 청약 열기, 금리에 영향을 받는데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청약 열기가 최근까지 높은 편에 속했다”며 “당첨된 사람도 계좌가 소멸된 이후에 바로 다시 주택청약을 신규 개설해 기본적으로 전체 주택청약 계좌는 증가 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서지희 기자 jhsseo@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가성비 높은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70개국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GMT
1547.1135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인텔 CEO 도덕성 논란...CPU 결함 들통 前 주식 절반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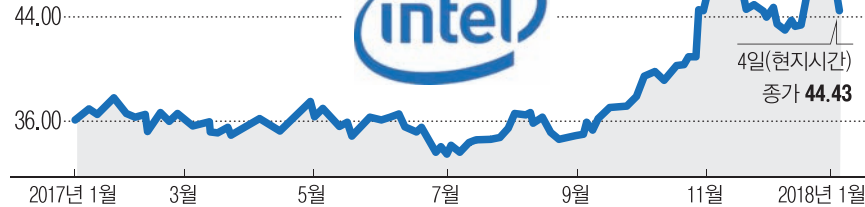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인텔의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최고경영자(CEO·사진)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인텔이 사상 초유의 중앙처리장치(CPU) 보안 결함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크르자니크 CEO가 이 사실이 들통나기 전 자신이 보유했던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크르자니크 CEO는 지난해 인텔이 자사 집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보유주 절반을 팔아치웠다고 4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크르자니크는 인텔 주가가 지난해 정점에 도달하기 3일 전인 10월 30일 24만5000주를 11월 29일까지 매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꾸준히 주식을 매각해 최종적으로는 25만 주만 보유하게 됐다. 이는 CEO로서 그가 반드시 보유해야 할 최소 물량이었다. 크르자니크는 지난해 무려 21차례나 주식을 매각했으며 금액상으로는 5000만 달러(약 532억 원)에 달해 그가 인텔 CEO에 재직 한 이후 가장 많았다고 CNN은 지적했다. CEO들은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다. 여기에는 사업 다각화와 유동성 확보, 대형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등의 목적이 포함된다. 그러나 크르자니크는 매각 규모도 엄청나고 현재 주식 보유량도 CEO 의무를 지키는 선에 그쳐 적절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인텔 주가 추이

(단위: 달러) ※출처: 블룸버그



CEO 의무지분만 남기고

지난해 532억원어치 팔아치워

공표 6개월 전 결함 알았지만

인텔 “매각과 관련 없어” 주장

인텔은 “크르자니크는 회사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주식 매각은 이번 보안 이슈와는 관련이 없다”며 “그는 사전에 계획된 매각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안 결함이 대중에 공개되면서 인텔 주가는 이틀간 6% 이상 급락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스타이시 라스곤 인텔 담당 애널리스트는 “그는 엔지니어이며 수학을 할 수 있다”며 “인텔의 해명은 보안 이슈와 상관없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내가 취급했던 모든 회사에서 최근 수년간



CEO가 이렇게 대규모로 보유주를 매각한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크르자니크는 2016년에도 주식을 18차례 매각했다. 그러나 그 어떤 매각도 지난해 말만큼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2016년 말 크르자니크의 주식 보유분은 연초보다 오히려 1만8000주 많았다.

CNN은 이래저래 지난해 11월 매각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문은 실제 침체 뉴스에서 인텔이 헤어나오려는 와중에 일어나 더욱 치명적이다. 사실 인텔 주가는 지난해 여름 이후 27% 올랐으며 애널리스트들 중 절

반 이상이 인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다. 애널리스트 중 부정적인 의견을 낸 사람은 8명 가운데 1명꼴에 불과했다. 크르자니크도 “지난해는 기록적인 해”라고 말할 정도로 인텔 자체에서도 고무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크르자니크 자신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하면서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특히 시장은 크르자니크가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인텔은 전날에야 자사 집에 보안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으나 이를 인지한 시점은 지난해 6월이었다. 6개월 이상이나 이 사실을 공공 감춘 셈이다. CPU 게이트가 인텔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인텔 대변인은 “우리는 보안 결함을 고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이미 밟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크르자니크의 주식 대량 매각은 CEO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즉 잘못된 이유로 자신의 이름이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긴 셈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르자니크에 대해 내부자 거래 금지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SLAW’ 포함 주요 유니콘 기업가치 ※출처: WSJ				
업체명	기업가치	총 투자유치액	최근 가치평가 시점	비고
S 스포티파이	200억 달러	10억 달러	2017년 12월	텐센트와 지분 교환
L 리프트	115억 달러	41억 달러	2017년 12월	
A 에어비앤비	310억 달러	33억 달러	2017년 3월	
W 위워크	202억 달러	44억 달러	2017년 7월	
드롭박스	100억 달러	6억700만 달러	2014년 1월	올해 상장 가능성
핀터레스트	123억 달러	15억 달러	2017년 6월	올해 상장 가능성
우버	680억 달러	129억 달러	2016년 6월	2019년 상장 가능성
스페이스X	210억 달러	15억 달러	2017년 7월	

작년엔 FANG? 올해는 SLAW

〈폐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

뉴욕증시 이끌 기대주

에어비앤비 등 상장 앞둔

스타트업 4곳 주목해야

스포티파이 3월 첫 테이프

지난해 미국 뉴욕증시는 페이스북과 아마존닷컴, 넷플릭스와 구글(알파벳 자회사) 등 이른바 FANG으로 불리는 IT 대장주들이 이끌었다. 올해는 아직 상장도 하지 않은 4개 스타트업 ‘SLAW’가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 지신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SLAW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Spotify)와 미국 2위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Lyft), 세계 최대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Airbnb)와 사무실 공유 서비스 업체 감자 위워크(WeWork)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이들 4개 업체는 올해 증시 상장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증시 랠리 지속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SLAW 중에서는 스포티파이가 첫 테이프를 끊을 예정이다. 전날 미국 주요 언론들은 스포티파이가 지난달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밀리에 상장 신청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주목할 것은 스포티파이가 기업공개(IPO)를 거치지 않고 바로 증시에 상장하는 이례적인 방법인 직상장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직상장은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면서 공개시장에서 매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상장 후 주식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리스크도 있지만 스포티파이는 그동안의 투자 유치로 통해 자금을 충분히 조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과감하게 직상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스포티파이의 기업가치는 현재 200억 달러(약 21조 원)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주요 스타트업들은 굳이 상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비상장 상태로 있어도 자금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인 데다 상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분기별 실적 발표와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주주로부터 압력도 받게 되는 등 번거로운 일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IPO를 선택한 기업들이 상장 후 주가가 부진했던 것도 스타트업들이 상장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3월 증시에 데뷔한 모바일 메시징 앱 스냅은 예상을 밑도는 실적에 주가가 IPO 공모가 밑으로 빠지는 등 고전했다. 블루에이프런도 지난해 6월 상장 후 주가 급락을 배경으로 지난달 맷 셀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사퇴했다. 반면 대규모 비상장 기업은 내부 관리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1년 전 IPO 최대 후보로 꼽혔던 세계 최대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성희롱과 차별 등의 불상사가 잇따라 발생한 끝에 설립자인 트래비스 칼라니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신문은 스포티파이가 상장에 성공하면 다른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들도 증시에 적극 데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SLAW 이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드롭박스과 사진 공유 소셜미디어 핀터레스트 등도 올해 증시 상장 후보로 꼽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민주공공 폭우로 33명 사망



4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의 물에 잠긴 도로에서 구조요원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콩고에서는 전날 밤 갑자기 내린 폭우로 최소 33명이 사망했다. 킨샤사 주택가의 언덕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컸다. 도미니크 벨로르 보건사회장관이 집계된 사망자 수만 밝힌 것이라 밝혀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킨샤사/AP연합뉴스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大勢는...스마트비서, 스마트시티, 스마트카



#집을 나서면 실내의 에어컨과 조명이 자동으로 꺼진다. 휴대 인식으로 탑승한 자동차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스스로 주차공간을 찾고 요금을 낸다.

2018년 우리 생활을 바꿀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9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이벤트를 앞두고 뉴욕타임스(NTY)가 ‘CES 2018’의 트렌드를 짚었다.

◇알렉사= 아마존의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는 CES의 최대 출연자가 될 전망이다. 소규모 IT 회사들이 아마존과 협력해 알렉사와 연동한 음성 제어



아마존의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가 탑재된 에코 스피커. AP연합뉴스

아마존 AI 결합한 제품 붐물

청소·보안 등 도시관리 시스템에

AI 최적화 네트워크 5G 떠올라

제품을 내놓기 때문이다. 전구와 로봇청소기, 커피메이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치가 알렉사와 연동해 작동한다. 알렉사를 활용한 기술 및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는 수천 개에 이른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음성인식 스

피커 중 68%는 알렉사와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과 애플도 이에 대응하는 제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애플은 홈팟을 출시할 예정이며 구글도 구글홈의 입지를 넓힐 계획이다.

◇스마트 시티= 사물인터넷(IoT)은 가정을 넘어 도시 곳곳으로도 뻗어나갈 전망이다. J.P 가운더 포스터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스마트홈의 다음 단계는 스마트시티”라고 말했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자동차가 주차 공간을 알아서 감지한다.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수거 시설에 알림이 가고 가로등이 청소리를 감지해 경찰에 신고한다.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는 수많은 센서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여러 기업이 CES에서 프로토타입 장치를 시연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카= 포드자동차와 현대자동차, BMW, 아우디 등 자동차 회사들

은 이번 CES에서 최신 기술을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각사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대신 커넥티드 카는 곧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가 주차 요금을 알아서 지불하고 홈에 인식되어 주차를 확인하는 기술이 시연된다.

◇5G= 컨설팅 기업 액센츄어 관계자는 “5G는 차세대 발전의 토대”라고 말했다.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차, AI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빠른 통신 속도가 요구된다. AT&T,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회사들은 이번 CES에서 5G 기술에 대해 발표할 전망이다. 5G는 현재 이용되는 4G보다 100배 빠르며 5초 이내에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사물 간 통신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다만 전 세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2020년까지 상용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도시바 ‘위기 원흉’ 웨스팅하우스, 캐나다에 팔린다

5조원에 투자펀드로 넘어가

중국·인도 원전 受注 긍정적

일본 도시바 경영 위기의 원흉인 미국 원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WH)가 결국 캐나다 투자펀드에 넘어가게 됐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작년 3월 파산보호를 신청한 웨스팅하우스가 인프라이사 등에 투자하는 캐나다 투자펀드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에 46억 달러(약 5조 원)에 팔리겠다고 보도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도시바의 자회사로 미국을 거점으로 원자로 생산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전개했으나 세계적 탈(脫)원전 움직임에 경영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3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인수처를 찾아오다가 인프라 사업 등에 투자하는 브룩필드와 매각 합의에 이르렀다. 인수 금액은 46억 달러로 미국 연방파산법원의 승인을 거쳐 절차가 완료된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브룩필드는 처음으로 원전 사업에 진출하게 된다. 원전을 직접 짓지는 않으나 관련 시설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브룩필드는 이날 성명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업계의 리더로 장기적인 고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며 원전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정적 수익이 매력적이라고 밝혔다. 브룩필드는 웨스팅하우스가 중국과 인도 등에서 대형 원자로를 수주해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데다 원전 유지·보수 서비스 기반이 견고하다는 점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펀드를 조성해 빚을 청산하고 새로 투자 자금을 투입하면 우량 원전회사로 거듭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웨스팅하우스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브룩필드의 자회사 매든 최고경영자(CEO)는 브룩필드는 웨스팅하우스의 상징이나 매각 등을 통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치지신문은 이것이 원전 업계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조지 웨스팅하우스와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한 3상 교류에 의한 전력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1886년 설립됐다. 한때 미국에서는 제너럴일렉트릭(GE)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브랜드 중 하나로 꼽혔다. 1920년대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고, 1950년대엔 세계 최초의 상용 원자력발전소를 설계 및 건설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KB금융그룹



상대가 누구든
이길 수 있다

차가운 겨울을 뜨겁게 만들 주인공들

그들이 만들 뜨거운 겨울을 KB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마지막 바퀴에서
치고 나가는 거야

힘차게 출발!

KB금융그룹은



대한빙상경기연맹
KOREA SKATING UNION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KOREA BOBSLEIGH SKELETON FEDERATION



대한아이스하키협회
Korea Ice Hockey Association



대한컬링경기연맹
KOREA CURLING FEDERATION

을 후원합니다

“높은 목표·자기계발·엄격한 절제’ 가져라”

이주열 총재가 한은 신입 행원들에 당부한 ‘세 가지’

“장군 될 생각이 없는 병사는 좋은 병사가 아니다.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죽어라고 뛰어라.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에게 겸손한 공복의식을 가져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열린 ‘2018년도 신입종합기획직원(G5) 입학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신입행원들이 유념해야 할 세 가지로 △조급은 높다 싶은 목표 △끊임없는 자기계발 △엄격한 자기절제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지나치지 않으면 야망은 좋은 것이다. 현실에 안주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열정을 잃는다”며 “부단히 앞을 봐야 한다. 미래 예측이 쉬운 일은 아니나 5년 적어도 2~3년 후 모습을 늘 그려보고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 ‘거울을 통하여’에서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한 말을 인용하며 “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뛰어라 한다.

현실에 안주하면 열정 잃게 돼 2~3년 후 모습 항상 그려보길 중앙은행 힘, 국민 신뢰로 얻어 한은 개개인 전문성 매우 중요 사익 추구하면 자신의 평판 흠

하물며 더 나아가려면 말할 것도 없다”며 “지금은 같은 출발선상이나 개인 노력 여하에 따라 10~20년 후 모습은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기술혁명의 진행 속도나 깊이는 방향조차 가늠기 어렵고 복잡다기하다. 거시정책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시적 노력이 아닌 생활화될 때만 비로소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엄격한 자기절제를



4일 서울 중구 부영대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년도 한국은행 신입직원 입학식에서 신입직원들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당부한다”며 “중앙은행의 힘은 권력이 아닌 국민 신뢰로부터 나온다. 일반인과 차별화되는 자기관리와 절제력을 보여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공후사, 즉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 목표와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긴 안목으로 보면 자신의 평판에 흠”이라고 덧붙였다.

3월 말 퇴임을 앞둔 이 총재 입장에서

김남현 기자 kimnh21c@

한화골프단, 후원 기업 한화큐셀로… “태양광 1위, 스포츠와 시너지”

체계적 지원, 창단 후 총 22승 이정민 영입, 선수단 9명으로

한화골프단이 올해부터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큐셀(대표이사 남성우)로 후원기업이 바뀐다.

한화그룹에서 2011년 창설한 한화골프단은 그동안 한화에서 후원을 해왔다.

한화큐셀은 4일 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수 라인업을 발표했다. 한화큐셀 골프단의 선수 라인업은 기존의 한화골프단 선수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활동 중인 김민경, 지은희, 노무라 하루, 신지은, 넬리 코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에서 활동 중인 이민영2, 윤채영, 그리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지현, KLPGA투어에서 총 8승을 올린 이정민을 새로 영입해 총 9명의 선수단을 형성하게 됐다.

한화골프단은 창단 이후 선수들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한화큐셀골프단출범 미디어 설명회’에서 선수단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민, 김지현, 이민영, 윤채영 선수. 지난 2011년 3월 창단해 작년까지 7년간 한화그룹 후원을 통해 활동한 ‘한화골프단’은 올해부터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큐셀 후원을 통해 ‘한화큐셀골프단’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뉴스시스

이 LPGA투어 11승, KLPGA투어 8승, JLPGA투어 2승, 유럽여자프로골프(LET)투어 1승 등 총 22승을 달성했다. 지난해는 한·마일에서 모두 10승을 올렸다. 김지현, 윤채영, 신지은 등은 지난

시즌 투어 첫 우승을 기록했다. 3승을 올린 김민경을 비롯해 지은희, 하루 노무라도 승수를 올렸다. 이런 우승 뒤에는 한화그룹의 체계적이고 아낌없는 선수단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번에 한화큐셀이 골프단을 후원하게 된 계기는 골프단을 통해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큐셀은 글로벌 태양광 업계에서 셀생산 세계 1위, 주요 시장 시장점유율 1위, 수익률 업계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이다. 한화큐셀의 주요 시장은 미국, 일본, 한국, 유럽 등이다. 주요 시장이 LPGA, KLPGA, JLPGA투어 활동 영역과 일치해 브랜드 효과 및 마케팅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우 한화큐셀 대표는 “태양광 비즈니스 구조가 정부 중심의 프로젝트 및 대형발전소 중심 시장에서 민간 중심 그리고 중소형 및 주택용 시장으로 확대되는 세계적 추세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한화큐셀은 시장 지위 강화를 위해 스포츠를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한 골프대기자 golfahn58@

‘주식만화’ 내기 위해 직접 투자 나선 허영만 화백

“건강한 돈 보여주고파… 수익률은 8%”

“주식투자를 두고 쉽게 돈 버는 것이 아니냐고들 하는데 절대 무노동이 아니더라. 투자하는 사람들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광장히 연구를 많이 하더라.”

허영만 화백이 신간 ‘허영만의 3천만 원 주식에 빠지다’ 출간을 기념해 4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식투자를 블로그 등 활동으로 보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허 화백은 주식과 시장을 직접 공부하며 실제 매매를 통해 정말 ‘건강한 돈’을 보여주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이에 허 화백은 ‘허영만의 3천만원’ 집필을 위해 직접 3000만 원의 종잣돈으로 실제 주식투자에 나섰다.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 자문단이 주식투자 경험의 거의 없는 그를 도왔고, 지난해 7월 31일 시작한 주식투자는 5개월 만에 8%의 수익을 거뒀다.

이 책은 5인의 투자자문단이 추천하는 종목과 매매 스타일의 차이,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는 것이 포인트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전문가들의 시각을 접할 수 있고, 시장의 흐름과 방향을 읽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허 화백은 “지금 수익은 8% 정도다. 5



허영만 화백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허영만의 3천만원’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개월 만에 8%면 괜찮은데 코스닥이 너무 울라서 지금 빚을 못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 화백의 투자 자문단에는 지난해 12월 한 명의 전문가가 추가로 합류했고, 총 운용금은 3600만 원으로 늘었다.

그는 “(주식투자를) 안 하는 사람도 주식에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주식은 결국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에도 관심을 두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ijr0403@

삼성家 지원받는 두울장학재단, 103명에 장학금

“女대생, 최고의 인재될 수 있게 지원”

이인희 한솔 고문이 이사장

국내 유일 여성전문 장학재단인 두울장학재단이 여대생 10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두울장학재단은 4일 서울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1학년 신입생 30명과 기존 장학생 2, 3, 4학년 학생 73명 등 10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두울장학재단은 평소 여성 장학사업에 관심이 남달랐던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고(故) 박두울 여사의 유지를 기려 2000년 1월에 설립된 재단이다.

재단은 고 박 여사 유산을 중심으로 이인희(사진) 한솔그룹 고문, 이병희 신세계 그룹 회장, 홍라희 삼성미술관 전 관장, 손복남 CJ 고문 등 자녀들이 뜻을 모아 기금을 조성했다. 삼성가(家) 만이인 한솔그룹 고문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두울장학재단은 재단 설립 이후, 2001년부터 매년 서류전형과 면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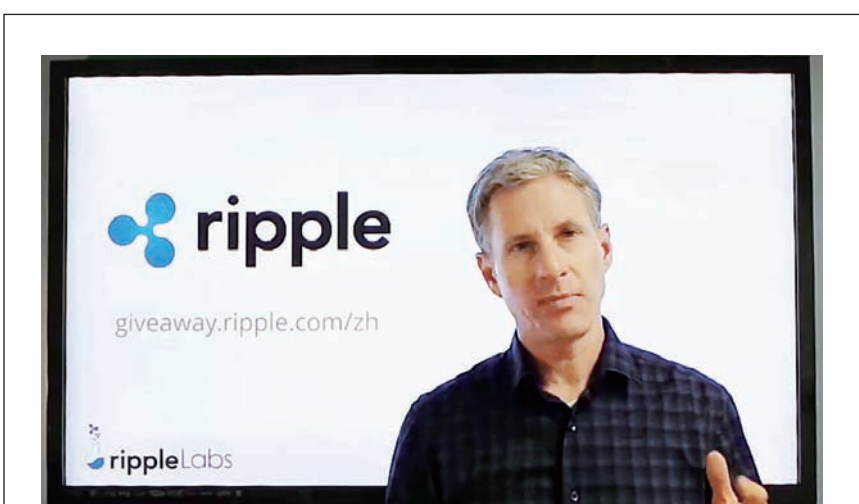


통해 학업 성적과 생활 환경, 자기계발활동 및 향후 진로와 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여학생들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뛰어난 성품과 자질을 가진 미래 우리 사회의 기둥으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재단측은 설명했다.

두울장학재단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뿐만 아니라 별도의 자기계발비도 지원한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7년간 약 500여 명의 장학생들에게 약 8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두울장학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공정한 선발과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 선발된 장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가상화폐 리플의 크리스 라슨 공동설립자.

유튜브 캡처

가상화폐 ‘리플’ 폭등에 창업자 ‘돈방석’ 라슨 회장, 자산 64조원…美부자 5위로

리플 작년 3만5500% ↑ 51억9000만개 보유

가상화폐 리플의 가격 폭등에 리플 공동설립자이자 회장인 크리스 라슨이 미국 5위 부자로 떠올랐다.

시장에서 XRP로 거래되는 리플 가격은 4일(현지시간) 한때 3.84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라슨 회장의 장부상 재산가치는 599억 달러(약 64조 원)에 이르게 됐다.

이는 포브스의 미국 400대 부자 순위에서 5위인 래리 엘리슨(584억 달러) 오라클 최고경영자(CEO)를 웃도는 것이며, 8위와 10위인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보다도 많은 것이다.

CNBC는 라슨 회장이 이런 쟁쟁한 인사들을 누르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에 이어 미국 5위 부

자가 됐다고 소개했다. 라슨은 리플(XRP)을 51억9000만 개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 지분도 17% 갖고 있다.

리플 가격은 지난해 무려 3만 5500% 폭등했다.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 상승세를 압도하는 것이다. 리플은 최근 가상화폐 시가총액 순위에서 이더리움을 누르고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리플 운영사는 현존하는 1000억 개의 리플 중 약 613억 개를 보유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리플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송금 시스템 개발사로, 현재 100여 개 금융기관이 리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리플은 자사 가상화폐 결제시간은 4초에 불과해 2분 이상인 이더리움, 한 시간이 넘는 비트코인에 대해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강건기 △성곽평가정책국장 이태희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임용) △추계세제분석실 조세분석심의관 최미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파견) △대법원 고용휴직 김성균 (과장급 전보)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수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국세청 △정보보호팀 신영재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학관 △개인납세2과 봉삼중 △송무2과 배상록 △조사2과 조사1과 윤상철 이창남 △조사3과 조사관리과 신석균 △조사3과 조사2과 김왕성 △조사4과 조사관리과 김용진 △국제조사1과 홍재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1담당관실 최종열 △개인납세2과 우왕용 △제납자재산추적과 노익환 △조사1과 조사2과 황문호 △조사2과 조사1과 구분윤 △조사3과 조사1과 함민규 △조사4과 조사1과 김상철 △조사4과 조사3과 홍순택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김형삼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방기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이강수 △범인납세과장 박우용 △세납자재산추적과장 조성택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이덕희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태열 △송무과장 이종학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 공창석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김상현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유수호 △세납자재산추적과장 이한동 △조사1과 조사2과장 이민수 △조사2과 조사관리과장 이동준 △조사2과 조사과장 최상호 △조사2과 조사2과장 배민규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이호민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1팀장 김진철

◆관세청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신현은 (과장급 승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 윤선덕 △안전세관 심사국장 유광수 △안전세관 감사국장 송석범 △청원세관장 하남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양창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홍성택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박범영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 1급 승진)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실 홍운석 △경기북부본부 안전관리처 장재필 △제주본부 김용현 △성남검사소 류익희 (관리 2급 승진) △도로안전본부 자격관리처 장찬욱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김양숙 △전북본부 안전관리처 이종원 △철도항공안전본부 철도승인처 이자웅 △자동차검사본부 검사기준처 김용달 △국로검사소 양경태 △이원검사소 임재근 △진주검사소 오태석 △제주검사소 정광영 △자동차안전연구원 부품연구처 배중호

◆BC카드 (승진) △커뮤니케이션실 전무 최석진

부음

▲정길수(전 포스코차이나 대표)·철수·주수·완수(한진 상무)씨 부친상 = 3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50

▲신경옥씨 별세, 김해송(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혜수·해리씨 모친상, 김형석(케이비피 대표)씨 장모상, 한정화씨 시모상 = 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오전 6시, 02-2227-7500

▲정남기(한겨레신문 부국장)씨 별세 = 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6일 오전 9시 30분, 02-2258-5940

▲신홍균(전 서울유남 대표이사)씨 별세, 현웅(한국외국인학교 부총교장)·현호(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부장)씨 부친상, 김창영(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씨 장인상 = 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6일 오전 8시 20분, 02-3010-2262

▲임순만(전 국민일보 편집장)씨 모친상, 원철권(영아농산 대표)·차재국(GK엔지니어링 이사)씨 장모상 = 4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02-3779-1963

▲이창하(TV조선 심의실 차장)·창훈(삼봉정밀전자 수석연구원)씨 모친상 = 4일, 한양대병원,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02-2290-9455

매달 ‘피메일 토크’ 진행... 女직원 고민 나누며 리더십 키워

〈Female Talk:여성들의 대화〉

기획 여성친화 기업을 찾아

②7 아디다스 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는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로 1982년 제우교육주식회사로 국내에 진출한 후 1997년 아디다스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09년 한국리복을 흡수합병하면서 국내에서 리복 사업도 벌이고 있다. 전문 스포츠 선수들부터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소비자를 타겟으로 운동화, 운동복, 운동용품 등 거의 모든 스포츠 종목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전체 직원 중 40%가 여성으로 높은 여성 비율을 자랑하는 만큼 여성이 일하기 좋은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임신부 단축근무제와 임신기간 출퇴근 시간 조정제도,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가 대표적이다. 또 여성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아디다스코리아 본사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빌딩에 자리하고 있다. 22층에 ‘하프타임’이라 불리는 넓은 공간은 마치 커피숍을 연상케 한다. 다양한 모양의 탁자와 소파가 즐비하고, 한편에 마련된 카페 바에서는 커피 내리는 소리와 함께 손님맞이로 분주하다. 이 공간은 주로 외부 업체와의 미팅이나 회의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기자가 방문한 날에도 삼삼오오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자리를 옮겨 사무실로 향하니 곳곳에 이색적인 공간이 눈에 띈다.

가장 먼저 시선이 향한 곳은 올림픽경기장 모양을 띤 대형 회의장인 ‘더 스타디움(The Stadium)’이다. 붉은 트랙 안에 초록빛깔을 더해 잔디 축구 경기장 분위기를 냈다. 평소에는 4개의 공간으로 분할해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사내 특별한 이벤트나 프로그램



아디다스코리아 직원들이 사내 남녀 리더들이 여성 리더십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들려주는 피메일 토크(Female Talk) 참여해 강연을 듣고 있다.

임산부 출퇴근 시간 조정·전용의자 지원 여성친화제도 다양 ‘노사문화 우수기업’ 사내 피트니스 센터서 육체건강 챙기고 명상·요가·식습관 체크로 멘탈까지 관리

을 진행할 시 공간을 띄워 넓은 강연장으로 활용한다. 또 통유리창 앞에 압박등받장과 철봉이 있는 것도 이색적이다. 23층 고층에 자리한 만큼 도심의 전경을 감상하며 운동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아디다스코리아 본사는 지정 좌석이 없는 오픈 오피스 형태의 사무 공간을 자랑한다.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앉아 업무를 보는 형태다. 출근길 러시아워를 피해 늦게 출근하는 임산부는 가장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사용하도록 고정 책상과 임산부 전용 의자를 지원한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또 다른 공간은 지하에 있는 사내 피트니스센터다. 직원들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사내 피트니스센터에서 전문 코치진에게 트레이닝을 받으며 요가, 크로스핏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긴다. 아디다스 관계자는 “개인 여가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회사에서 충분히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며 “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며 시간에 쫓겨 건강을 챙길 여유가 적은 여성 직원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고 전했다.

직원들이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명상,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식습관, 아로마클래스, 내 마음보고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여성 직원들이 말하는 ‘우리 회사가 좋은 이유’

육아휴직 한 달 前 대체인력 채용... 눈치 ‘뚝’ 걱정 ‘썩’

유연한 조직문화로 ‘워라밸’ 실현... 경력단절 걱정 ‘뚝’
두 번의 출산과 육아휴직을 경험하며 눈치 보지 않고 관련 제도를 사용하는 분위기와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문화가 많이 정착됐음을 느껴요. 유연근무제로 인해 육아휴직 후 복귀에 대한 부담을 덜었고, 현재 8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며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친정엄마와 아이들께 더 미안한 마음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업무 성과도 좋은 것 같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유지를 돕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리테일 부문 김수정 차장

사내 피트니스센터는 힐링캠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많은 사내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중 단연 자랑하고 싶은 것은 바로 회사 지하에 있는 사내 피트니스센터에서 운영하는 라이즈(Rise) 프로그램이에요.

개인적으로 점심 명상수업이나 오후 요가수업을 즐기는 편이죠. 선생님들의 목소리와 음악이 함께하면 업무에 차인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동시에 감성이 충전되며 그야말로 힐링캠프가 따로 없을 정도예요.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겁게 다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브랜드 리복 안혜지 대리

여성 성장 돕는 ‘여성리더십 프로그램’... 경력관리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멘토링과 교육계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해 여성 직원들의 성장을 돕습니다. 남성 직원들도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질적으로 여성 리더십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하고 이야기해 볼 기회가 주어지고 있죠. 최근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멘토의 생생한 경험과 조언을 통해 동시에 나의 계획과 비교해 보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나의 커리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브랜드 아디다스 노윤신 부장

김민정 기자 mj@

인터뷰 이푸르네 아디다스코리아 HR부문 상무

“마음 편하게 출근하고, 휴직하고... 유연한 조직문화에 모두가 엄지척”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직원만족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업무몰입도도 상승하죠. 역량 있는 여성 인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고 지속적인 자기 성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과 경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사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하고, 오후 5~7시 사이에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는 아디다스코리아 조직원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여성친화 제도로 꼽힌다. 이 외에도 임신과 출산을 앞둔 여성 조직원이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제도를 운영 중이다.

“육아휴직을 가는 조직원이 생기면 인사팀에 통보하게 돼 있고, 대체인력 채용 프로세스를 시작하죠. 휴직 한 달 전에 대체인력을 뽑고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밟기 때문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요. 회사가 인력 충원을 바로 실행해 조직원이 마음 편히 휴직할 수 있도록 노력했죠.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남성 육아휴직자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푸르네(사진) 아디다스코리아 상무가 인터뷰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 상무는 더 많은 여성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힘을 쏟는다. 여성이 생애주기별로 겪어야 하는 출산과 임신, 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긴다.

이 상무는 20년 가까이 HR(인사관리) 부문에서 인사시스템과 인력관리, 조직문화 등을 담당하면서 전문성을 키운 인사 전문가다. 이베아, 코치코리아 등 주로 외국계 기업의 HR 담당자로 경험과 실력을 쌓았고, 지난해 아디다스코리아에 합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직문화를 만들고 꾸준히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인사 체계를 만드는 것이 HR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또 조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를 잘 구현해 내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유연근무제를 현실화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직장맘들이 많은데,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출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길 가장 원하더군요.”

오전 8~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

김민정 기자 mj@

프리미엄 회원 주상복합 입주자 모집공고안

■입주대상자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141㎡	80	141	5.04	18.5	12.7	35.2	554	3.74
■세채 주택형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62.5㎡	13	62.5	1.37	23.6	14.7	37.3	6.39	-
주상복합	125㎡	2	122	8.27	15.9	15.9	42.5	7.5	-
■주상복합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주상복합	80㎡	57.89	22.69	79.49	8.13	42.34	120.16	22.71
	주상복합	107㎡	82.47	22.77	86.9	8.14	46.38	141.77	24.91
	주상복합	121㎡	92.91	23.99	92.91	9.95	48.96	149.65	26.3
	주상복합	121㎡	98.41	23.07	79.33	8.42	42.99	120.44	22.95
	주상복합	142.4	54.66	16.6	73.94	7.84	38.79	115.27	21.39
	주상복합	150.8	42.15	14.85	58.5	5.96	32.02	93.35	16.84
주상복합	주상복합	150.8	55.22	18.03	76.33	7.29	39.17	110.35	18.29
■주상복합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주상복합	80㎡	57.89	22.69	79.49	8.13	42.34	120.16	22.71
	주상복합	107㎡	82.47	22.77	86.9	8.14	46.38	141.77	24.91
	주상복합	121㎡	92.91	23.99	92.91	9.95	48.96	149.65	26.3
	주상복합	121㎡	98.41	23.07	79.33	8.42	42.99	120.44	22.95
	주상복합	142.4	54.66	16.6	73.94	7.84	38.79	115.27	21.39
	주상복합	150.8	42.15	14.85	58.5	5.96	32.02	93.35	16.84
주상복합	주상복합	150.8	55.22	18.03	76.33	7.29	39.17	110.35	18.29
■주상복합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주상복합	80㎡	57.89	22.69	79.49	8.13	42.34	120.16	22.71
	주상복합	107㎡	82.47	22.77	86.9	8.14	46.38	141.77	24.91
	주상복합	121㎡	92.91	23.99	92.91	9.95	48.96	149.65	26.3
	주상복합	121㎡	98.41	23.07	79.33	8.42	42.99	120.44	22.95
	주상복합	142.4	54.66	16.6	73.94	7.84	38.79	115.27	21.39
	주상복합	150.8	42.15	14.85	58.5	5.96	32.02	93.35	16.84
주상복합	주상복합	150.8	55.22	18.03	76.33	7.29	39.17	110.35	18.29
■주상복합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주상복합	80㎡	57.89	22.69	79.49	8.13	42.34	120.16	22.71
	주상복합	107㎡	82.47	22.77	86.9	8.14	46.38	141.77	24.91
	주상복합	121㎡	92.91	23.99	92.91	9.95	48.96	149.65	26.3
	주상복합	121㎡	98.41	23.07	79.33	8.42	42.99	120.44	22.95
	주상복합	142.4	54.66	16.6	73.94	7.84	38.79	115.27	21.39
	주상복합	150.8	42.15	14.85	58.5	5.96	32.02	93.35	16.84
주상복합	주상복합	150.8	55.22	18.03	76.33	7.29	39.17	110.35	18.29
■주상복합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주상복합	80㎡	57.89	22.69	79.49	8.13	42.34	120.16	22.71
	주상복합	107㎡	82.47	22.77	86.9	8.14	46.38	141.77	24.91
	주상복합	121㎡	92.91	23.99	92.91	9.95	48.96	149.65	26.3
	주상복합	121㎡	98.41	23.07	79.33	8.42	42.99	120.44	22.95
	주상복합	142.4	54.66	16.6	73.94	7.84	38.79	115.27	21.39
	주상복합	150.8	42.15	14.85	58.5	5.96	32.02	93.35	16.84
주상복합	주상복합	150.8	55.22	18.03	76.33	7.29	39.17	110.35	18.29
■주상복합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주상복합	80㎡	57.89	22.69	79.49	8.13	42.34	120.16	22.71
	주상복합	107㎡	82.47	22.77	86.9	8.14	46.38	141.77	24.91
	주상복합	121㎡	92.91	23.99	92.91	9.95	48.96	149.65	26.3
	주상복합	121㎡	98.41	23.07	79.33	8.42	42.99	120.44	22.95
	주상복합	142.4	54.66	16.6	73.94	7.84	38.79	115.27	21.39
	주상복합	150.8	42.15	14.85	58.5	5.96	32.02	93.35	16.84
주상복합	주상복합	150.8	55.22	18.03	76.33	7.29	39.17	110.35	18.29
■주상복합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주상복합	80㎡	57.89	22.69	79.49	8.13	42.34	120.16	22.71
	주상복합	107㎡	82.47	22.77	86.9	8.14	46.38	141.77	24.91
	주상복합	121㎡	92.91	23.99	92.91	9.95	48.96	149.65	26.3
	주상복합	121㎡	98.41	23.07	79.33	8.42	42.99	120.44	22.95
	주상복합	142.4	54.66	16.6	73.94	7.84	38.79	115.27	21.39
	주상복합	150.8	42.15	14.85	58.5	5.96	32.02	93.35	16.84
주상복합	주상복합	150.8	55.22	18.03	76.33	7.29	39.17	110.35	18.29
■주상복합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주상복합	80㎡	57.89	22.69	79.49	8.13	42.34	120.16	22.71
	주상복합	107㎡	82.47	22.77	86.9	8.14	46.38	141.77	24.91
	주상복합	121㎡	92.91	23.99	92.91	9.95	48.96	149.65	26.3
	주상복합	121㎡	98.41	23.07	79.33	8.42	42.99	120.44	22.95
	주상복합	142.4	54.66	16.6	73.94	7.84	38.79	115.27	21.39
	주상복합	150.8	42.15	14.85	58.5	5.96	32.02	93.35	16.84
주상복합	주상복합	150.8	55.22	18.03	76.33	7.29	39.17	110.35	18.29
■주상복합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주상복합	80㎡	57.89	22.69	79.49	8.13	42.34	120.16	22.71
	주상복합	107㎡	82.47	22.77	86.9	8.14	46.38	141.77	24.91
	주상복합	121㎡	92.91	23.99	92.91	9.95	48.96	149.65	26.3
	주상복합	121㎡	98.41	23.07	79.33	8.42	42.99	120.44	22.95
	주상복합	142.4	54.66	16.6	73.94	7.84	38.79	115.27	21.39
	주상복합	150.8	42.15	14.85	58.5	5.96	32.02	93.35	16.84
주상복합	주상복합	150.8	55.22	18.03	76.33	7.29	39.17	110.35	18.29
■주상복합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주상복합	80㎡	57.89	22.69	79.49	8.13	42.34	120.16	22.71
	주상복합	107㎡	82.47	22.77	86.9	8.14	46.38	141.77	24.91
	주상복합	121㎡	92.91	23.99	92.91	9.95	48.96	149.65	26.3
	주상복합	121㎡	98.41	23.07	79.33	8.42	42.99	120.44	22.95
	주상복합	142.4	54.66	16.6	73.94	7.84	38.79	115.27	21.39
	주상복합	150.8	42.15	14.85	58.5	5.96	32.02	93.35	16.84
주상복합	주상복합	150.8	55.22	18.03	76.33	7.29	39.17	110.35	18.29
■주상복합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주상복합	80㎡	57.89	22.69	79.49	8.13	42.34	120.16	22.71
	주상복합	107㎡	82.47	22.77	86.9	8.14	46.38	141.77	24.91
	주상복합	121㎡	92.91	23.99	92.91	9.95	48.96	149.65	26.3
	주상복합	121㎡	98.41	23.07	79.33	8.42	42.99	120.44	22.95
	주상복합	142.4	54.66	16.6	73.94	7.84	38.79	115.27	21.39
	주상복합	150.8	42.15	14.85	58.5	5.96	32.02	93.35	16.84
주상복합	주상복합	150.8	55.22	18.03	76.33	7.29	39.17	110.35	18.29
■주상복합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주상복합	80㎡	57.89	22.69	79.49	8.13	42.34	120.16	22.71
	주상복합	107㎡	82.47	22.77	86.9	8.14	46.38	141.77	24.91
	주상복합	121㎡	92.91	23.99	92.91	9.95	48.96	149.65	26.3
	주상복합	121㎡	98.41	23.07	79.33	8.42	42.99	120.44	22.95
	주상복합	142.4	54.66	16.6	73.94	7.84	38.79	115.27	21.39
	주상복합	150.8	42.15	14.85	58.5	5.96	32.02	93.35	16.84
주상복합	주상복합	150.8	55.22	18.03	76.33	7.29	39.17	110.35	18.29
■주상복합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주상복합	80㎡	57.89	22.69	79.49	8.13	42.34	120.16	22.71
	주상복합	107㎡	82.47	22.77	86.9	8.14	46.38	141.77	24.91
	주상복합	121㎡	92.91	23.99	92.91	9.95	48.96	149.65	26.3
	주상복합	121㎡	98.41	23.07	79.33	8.42	42.99	120.44	22.95
	주상복합	142.4	54.66	16.6	73.94	7.84	38.79	115.27	21.39
	주상복합	150.8	42.15	14.85	58.5	5.96	32.02	93.35	16.84
주상복합	주상복합	150.8	55.22	18.03	76.33	7.29	39.17	110.35	18.29
■주상복합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주상복합	80㎡	57.89	22.69	79.49	8.13	42.34	120.16	22.71
	주상복합	107㎡	82.47	22.77	86.9	8.14	46.38	141.77	24.91
	주상복합	121㎡	92.91	23.99	92.91	9.95	48.96	149.65	26.3
	주상복합	121㎡	98.41	23.07	79.33	8.42	42.99	120.44	22.95
	주상복합	142.4	54.66	16.6	73.94	7.84	38.79	115.27	21.39
	주상복합	150.8	42.15	14.85	58.5	5.96	32.02	93.35	16.84
주상복합	주상복합	150.8	55.22	18.03	76.33	7.29	39.17	110.35	18.29
■주상복합									
구분	타입	입주 세차	세채 주택형				계약면적 (부대시설 포함)	계약면적	사채면적
			전용면적	준용면적	소채	기공준용면적			
주상복합	주상복합	80㎡	57.89	22.69	79.49	8.13	42.34	120.16	22.71
	주상복합	107㎡	82.47	22.77	86.9	8.14	46.38	141.77	24.91
	주상복합	121㎡	92.91	23.99	92.91	9.95	48.96	149.65	26.3
	주상복합	121㎡	98.41	23.07	79.33	8.42	42.99	120.44	22.95
	주상복합								



박종진의 만년필 이야기 ⑦

이상적인 만년필 크기는

영국에선 백조를 잡거나 죽이면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여왕반역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12세기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소유권의 표시가 없는 백조는 모두 영국왕의 소유라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왜 이런 법률이 정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백조가 맛이 좋아 연회에 자주 오르자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여왕과 백조, 겉으로 보면 우아한 조합이지만 실재 속은 그렇지 못했어. 필기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제정된 연유가 썩 내키는 것은 아니다.

백조의 크고 아름다운 깃털은 깃펜의 최상의 재료이기도 하다. 깃펜은 동양의 붓에 비하면 역사가 짧지만, 서양에선 가장 오래 사용된 필기구이다. 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약 1500년간 사용되었다. 서양 역시 필기는 오른손으로 하였고 때문에 잡았을 때 바깥쪽으로 휘는 왼쪽 날개의 것이 선호되었다.

영어로 백조는 스완(swan)이지만 암컷 백조는 따로 펜(pen)이라고 부른다. 암컷의 깃털이 길고 굵어 깃펜으로 만들어 쓰기 좋기 때문이다. 깃펜의 길이는 보통 16~18cm인데 긴 백조의 깃털은 이 길이로 만들기 충분했다. 또 손으로 잡기 편할 만큼 굵고 한 번의 디핑(dipping-잉크를 찍는 것)에도 조금 더 많은 글을 쓸 수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길이가 다음에 등장하는 필기구인 연필과 만년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다. 연필의 길이는 보통 17~18cm이고 몽블랑 만년필 중 최상위 라인인 149는 뚜껑을 켜면 166mm, 펠리칸의 명작 M800은 164mm이다.

만년필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온 글을 쓰는 애플사(社) 애플 펜

슬은 17.5cm이다. 약 17cm가 필기구의 이상적인 길이일까? 사실 17cm 이상은 끝이 무뎌지면 꺾여 써야 하는 깃펜과 연필의 적정한 길이이다. 우리보다 손이 큰 서구에서도 17cm가 좀 안 되는 몽블랑 149와 펠리칸 M800은 오버사이즈라고 부른다. 연필도 몇 번 꺾어야 쓰기 편한 길이가 나온다. 16~17cm는 길다.

16~17cm가 길면 16cm 미만은 어떨까? 1970년대 후반 일본의 한 만년필 회사는 만년필에 조예가 깊은 작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만년필을 제작하게 된다. 그 작가의 제안은 이러했다. 주름 있는 몸통, 펜촉은 22mm 전후, 펜의 길이는 16cm 미만, 이 제안을 받아들여

졌고 회사는 15.9cm의 만년필을 만들었다.

이 만년필은 지금도 나올 만큼 성공했지만 15.9cm는 과감하지 못했다. 망설이지 말고 더 줄였어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

서 이 회사도 15.9cm가 길게 느껴졌는지 최근에 내놓은 성공한 신작은 5mm 짧아진 15.4cm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모두가 인정하는 실용의 명작 파커51의 길이는 15cm이다. 이게 이상적인 길이일까? 중요한 기준은 될 수 있어도 꼭 맞는 답은 아니다. 최근에 알려진 진실인 파르테는 신전, 밀로의 비너스, 모나리자, 앵무조개 그 어디에도 황금비가 없는 것처럼 15cm는 저마다 손 크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상적인 길이로 확정할 수 없다.

결국 이상적인 길이는 그 사람의 손이 결정하는 것이다. 값이 비싸지 않고 오래되고 불품없어도 잡기에 편하고 글이 잘 써진다면 그 만년필이 궁극의 만년필이고 그 길이가 이상적인 길이이다.

만년필연구소장



1907년의 스완 만년필 광고.

허진국의 세계경제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이 칼럼은 주로 나라 밖 경제 이슈를 다룰 것이다. 때론 시의성 있는 사안을, 때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강세를 보이는 원화 환율은 첫 번째 사안의 주제이고, 미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의 안정적 추세는 후자의 주제로 볼 수 있다.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의 경우 당장 원·달러 환율이 턱밑까지 차오른 물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던 미국 주택금융 시장의 문제가 2008년 엄청난 국제 금융위기를 촉발해 세계 경제를 10년 가까이 짓누르는 일이 발생했다. 일견 현안이 아닌 것 같으나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되는 일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깊은 생체기의 생생한 상흔을 반사 상태인 한국 조선산업에서

성장하는 세계경제, 올해 우리는?

볼 수 있다. 한때 조선대국 입국공신이었으나 이제 이들의 심각한 부진은 옛 정부나 새 정부, 또는 민간이나 공공의 경계를 넘어 깊은 고민을 안기고 있다. 위기 발생 직후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업에 전념한 영국 경제의 심각한 침체를 가리키며 ‘한국이 제조업 강국인 것의 지혜’를 찬양하며 정부의 기를 세워주던 전문가들에게는 좀 겸연쩍은 일이다.

반면 2000년대 말 도핑 검사 없이도 스테로이드제제 과다 투여로 반인반수(半人半獸)와 같았던 미국의 금융산업은 세계 경제를 초주검 상태로 몰아넣었던 과썸한 강력범이었는데 최근 연일 반장하고 있다. 미국 주가지수가 거듭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일부 대형 투자은행은 위험을 즐기는 노름꾼들의 전유물인 가상화폐 거품에 따른 수익률과 변동성에 침을 흘리며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하려 한다고 한다.

의미가 모호하지만 나라 안에서 회자하는 ‘경제 정의’를 옹변하며 세계 경제 질서의 부당함에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별 소

용이 없다. 수많은 작은 나라들과 몇몇 큰 나라로 이루어진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은 큰 나라의 경제 상황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처지가 정말 싫으면 북한처럼 바깥 세상에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그곳의 생활 수준은 ‘헬조선’이라는 한국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낮다 하니 쇄국적 경제기조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

더욱이 세계 경제 질서가 정의로운 질서가 아닐지 모르나, 규범이 없는 정글의 약육강식의 생태계도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가간 상거래와 수반되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 규범을 관장하는 기구와, G20과 같은 정책공조와 문제 공론화의 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제는 약 160년 제국 열강이 석권하던 시절 자국으로의 아편 수입을 막은 중국을 상대로 영국이 전쟁을 일으켜 홍콩을 강탈했던 것과 같은 일이 재현될 개연성은 매우 낮다.

우리는 반세기 전부터 외국과의 무역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삼는 큰 틀의 선택을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총생산 대비 대외 무역의 규모로 본 개방도는 더 높아졌다. 세계 경제의 부침에 나라 경제의 성과가 더 동조화되었다는 것이다. 내수 경제를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당분간 소득, 고용 등 중요한 경제 성과에 나라 밖 사정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 경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미국, 중국, 그리고 EU 경제가 우리 경제와 직면할 외부 여건을 결정지를 것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선진국 미국과 유럽이 2017~2018년에는 2016년의 부진을 넘어서고, 대형 신흥국 중 2016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브라질과 러시아도 회복세를 보이며 전반적 호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경제가 이 두 해에 각각 약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6년의 3.2%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앞으로 나라 밖 경제 사정을 더 자세히 살필 것이다.

한 컷



봄을 기다림

오늘은 소한. 이따리 하나 남아 있지 않은 앙상한 나무가 출고 메마른 겨울을 잘 견디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화려했던 단풍도 벗어던지고 그림자를 깊게 뿌리내려 매서운 바람을 받아들이고. 혹한을 견디면 봄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이 아름답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온라인 모토모

김종석, 시민에게 ‘ㅅㄱㅅㅅ’ 문자…“국회의원 맞아?”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안법(전기통신법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시민에게 “ㅅㄱㅅㅅ”, “ㄹㅇㅅㅅ”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방송된 jtbc ‘정치부회의’에 따르면 한 시민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안법 개정을 위한 본회의 참여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시민은 “시민들을 죽이는 전안법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다”며 “시민의 권리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본회의조차 출석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시민에게 ‘ㅅㄱㅅㅅ’, “ㄹㅇㅅㅅ” 문자 논란…“국회의원 맞아?” 이 같은 시민의 문자에 김 의원은 “ㄹㅇㅅㅅ”라는 욕설이 담긴 답장으로 간곡한 요구를 묵살해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시민도 전안법 개정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 보냈고, 김 의원은 이 시민에게 “ㅅㄱㅅㅅ”라는 답문을 보냈다. ‘ㅅㄱㅅㅅ’가 어떤 뜻을 담은 것인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선 “수고 불참”, “수고반중”, “세금바쳐” 등 여러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네이버 아이디 ‘happ****’는 “살다 보니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욕설 문자를 다 보내네. 진짜 국회의원 맞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질타했다. 트위터 아이디 ‘@kraz****’는 “지역 이기주의와 잘못된 정치적 무지함으로 이런 국회의원을 양산하는 것은 이제 그만합시다. 다음 총선에선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뽑히길”이라며 오히려 김종석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데 국민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shss****’는 “정말 놀라운 사실은 김종석 의원이 지난달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물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상을 받은 데 대한 의혹도 밝혀지자”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아이타올(주)

Happy
New
Year
2018

크로커다일 캐슬세면타올

www.itowellmall.co.kr

대표번호 02) 755-1091

이슈 & 인물

남북관계 해빙 무드

손기웅
통일연구원장

대담=신동민 정치경제부 정치팀장

김정은 신년사, 기본적으로
경제난 극복 위한 平和공세
개성공단 재개 등 經協 요구
안보리 제재 틀 안에서 가능

韓美동맹 흔들려는 의도?
우리 정부, 충분히 대응 가능
'北을 좀더 자유로운 사회로'
保守도 그쪽에 가치 뒀야

베를린 장벽 붕괴 현장서 체험

손기웅(59) 통일연구원장은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통일연구원에 몸을 담은 뒤 기획조정실 실장, 북한인권 연구센터 소장, 부원장 등을 맡았고 지난해 3월 원장에 임명됐다. 한국DMZ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를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 가운데 통일 문제를 전업으로 연구하는 유일한 학자로 꼽힌다. '통일,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 '독일 통일: 쟁점과 과제 1·2', '환경군국주의' 등 15권의 저서를 펴냈다.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3	정책사회부 (02)799-2612	
기업금융부 (02)799-2665	산업1부 (02)799-2648	산업2부 (02)799-2641	
자본시장부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2643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사전팀 (02)799-2646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권력을 잡고 나서 핵심과제로 ‘권력 안정’과 ‘북한 체제 안정’ 두 가지를 추진했다. 그동안 권력 안정용으로 핵 무력 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대남 창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연초 멈췄던 남북 관계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4일 급하게 찾은 통일연구원 내부도 자체 회의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만난 손기웅 통일연구원 원장은 그동안 극단으로 치달았던 남북 관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北 도발’ 귀책사유는 분명히 해야

그동안 북핵·미사일 문제로 일촉즉발(一觸即發)의 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1일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우리 정부를 향한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보내면서 남북 소통의 회복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측은 우선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 올림픽 참가 논의 등을 중심으로 대화체널을 가동할 전망이다. 선수단과 임원진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군사분계선을 넘는다든가 상징적인 의미를 안고 육로로 내려올지, 아니면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할지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북한의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손 원장은 이 같은 북한의 화해 제스처에 대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북한의 정권 창건 70주년과 한국의 평창올림픽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센터 소장, 부원장 등을 맡았고 지난해 3월 원장에 임명됐다. 한국DMZ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를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 가운데 통일 문제를 전업으로 연구하는 유일한 학자로 꼽힌다. ‘통일,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 ‘독일 통일: 쟁점과 과제 1·2’, ‘환경군국주의’ 등 15권의 저서를 펴냈다.

손 원장은 우선 북한과 본격적인 대화



손기웅 통일연구원장은 4일 서울 반포대로 통일연구원에서 진행된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북한의 45배에 달하는데 뭐가 무서워서 대화를 피하는지, 외국에서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며 “교류 협력이 퍼주리라 북한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개성공단은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20만 명 근로자에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소원도”라며 “북한의 개혁을 통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했다면 북한의 변화도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워했다.

의 물꼬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의 평화 공세는 김정은 정권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분석했다.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의 핵심과제가 ‘권력 안정’, ‘북한 체제 안정’ 두 가지였다. 또 핵심 키워드로 핵 무력 완성에 초점을 뒀다. 그는 “신년사에서 권력 안정과 체제 안정을 위한 하드웨어로 핵 무력 완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남은 것은 경제건설인데, 이를 위해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무언가 외부로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과 공화국 창건 70년 기점을 말한 것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核 없이도 공동번영’ 보여주려는 것

손 원장은 문제인 정부가 북핵 동결이 전제돼야 대화하겠다는 기본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 등 경험을 요구할 경우 국제 제재가 허용하는 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핵 문제의 핵심은 미국·중국·러시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손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전 정부는 남북 관계를 등한시켰다”며 “현 정부는 이를 병행하자는 것, 즉 국제사회와 더불어 국제 제재는 하되, 핵 없이도 공동 번영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런 원칙상에 핵무기와 남북대화가 등치된다면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만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가 작동한 상황에서 예전과 같이 북한에 현금 지원 등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손 원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큰 틀 안에서 가동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개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새롭게 경험에 재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 등은 북한 도발에 따른 결과다. 북한의 귀책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큰돈을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없다. 큰돈이 가지 않고 예를 들면, 돈 대신 현물을 놓고 현물리스트에서 국제 제재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지원, 대북문화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지원이 북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이 하고 있는데, 이를 불식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전과 같은 경험은 없다. 평화 속에서 남북 교류를 위해 어떤 분야도 원한다고 원칙을 밝히고, 그 내용과 방법은 과거와 같을 수 없다. 그래야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인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이 차려놓은 무대에 평화 마케팅을 하겠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며 “김정은이 올림픽 참가에 따른 득실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중국, 러시아가 참가하니까 올림픽에 무력 도발은 힘들다”고 내다봤다.

對北정책, 국내 공감대 형성해야

그는 “북한은 몇 종족 참가보다는 참가 자체에 의의를 둘 것이다. 또 대북단에 여러 인물을 보여줌으로써 올림픽이라는 평화 이미지, 신년사에서 밝혔다시피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일 것이다. 또 남북 갈등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은 대남과의 관계에서 과감한 출구가 필요하면서도 여야 민간교류 차원 등 다양하게 얘기했다. 이런 다양한 공세는 평창 이후에도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손 원장은 앞으로 정부가 남북 협상 과정에서 김정은이 평화 공세만 계속하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라액션을 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대화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인식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는 남과 북이 다른 정치 체제라는 전제하의 제재”라며 “우리 정부는 우리만의 국가 이익이 필요하다. 지난해에

북한에 손을 내밀었는데 안 잡았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에 따라 대화를 지속하면 북핵 문제 등 남북 관계의 개선이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원장은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여야 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손 원장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보수라 하더라도 원하는 게 핵 폐기가 아니고 어떻게 북한이 자유롭고 민주주의 사회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이게 보수의 가치”라고 풀이했다.

미국과 공조 속 남북관계 주도

‘평화 공세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전술핵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감정적인 대처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려면 제재만 하느냐’ ‘오히려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여야 간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도 이러한 원칙을 강조해야 하고, 북한 정권의 생명연장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는 통로로 봐야 한다”며 “헌법적인 가치를 보면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독일도 진보 정부인 빌리 브란트 총리 때 동사의 물꼬를 뒀지만, 보수 정부인 헬무트 콜 총리일 때 더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이번 북한의 대화 제스처가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 원장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 경험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보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등 호감이 없었지만, 당선 이후 사드 배치를 확정짓는 것은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에 대한 화답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고, 북핵에 대한 철저한 검증 가능한 폐기를 공언했다”며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의 이간질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손 원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독일도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대화하면서 동사의 입장이 풀렸다”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정리=곽도훈 기자 sogood@

화제의
신간



돈이 되는
부동산
독이 되는
부동산

집 부자
되고

김현기 지음 | 값 14,000원

앞으로 대박 날 땅의 위치를 알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모여라~

성공적인 땅 투자 10계명

- 1계명 용도지역에 일방적으로 지배받지 않는다.
- 2계명 지목에 지배받지 않는다.
- 3계명 접근성과 잠재성의 연계성을 연구한다.
- 4계명 인구에 집중한다.
- 5계명 위치가 곧 가치다.
- 6계명 지상물보다 인구에 집중한다.
- 7계명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다.
- 8계명 자신의 경제력을 잘 인지한다.
- 9계명 규제 공부는 필수다.
- 10계명 기획부동산의 의미를 적극 참고하고, 관찰한다.

땅 투자 10계명을 고수하기 전에 자신의 처지와 투자하고자 하는 땅의 위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땅지 역시 개발 대상에 포함된다. 최소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땅이다.

땅지 가치는 거의 바닥 상태다. 주변 번수에 따라 가치가 높아질 여력이 충분하다.

사고자 하는 땅이 개발 대상의 땅인지, 내가 투자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나서 컨설팅트를 만나자.

돈이 되는
부동산
독이 되는
부동산

집 부자
되고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전화 (02)322-6144 | 팩스 02-325-6143

무한



하이난 미션 힐스 블록버스터 골프 180

사드를 넘고 캐디산성을 넘어 이 시대의 평화를 연다! 대한민국 골퍼가 간다!

세계 최초 · 최대 골프 상품 · 180홀 라운드
매주 목요일(3박 5일) 일요일(4박 6일) 출발

당신의 샷에서 우정이 깊어집니다
하이난 가는 하늘 길에서 평화가 열립니다



가온투어 1566-0672 · 빅토리골프 02-511-9011 · 세양여행사 02-701-5678 · 오케이골프 1644-6578 · 이룸투어 02-512-7705
이에스투어 02-775-8383 · 인월드여행사 02-735-5900 · 정성여행사 02-3789-6645 · 타이가골프 02-598-2007 · 트라움여행사 02-515-3430

제대로 즐기기엔 겨울이 너무 짧다

관광공사 추천 '동계 레포츠 名所'

한겨울 땡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지만 상쾌하고 짜릿한 겨울 레포츠로 추위를 이겨 보는 건 어떨까. 미끄러지듯 얼음 위를 달리는 스케이트링이나 컬링, 빙벽 등반 등을 배우고 즐기다 보면 어느새 움츠렸던 몸이 나도 모르게 풀린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동계 레포츠 명소가 있는 5개 지역 관광지를 소개한다.

국가대표 선수와 나란히 스케이트링

◇도심에서 겨울 레포츠를...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팅장 =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국제스케이팅장은 2000년 실내 아이스링크로 탈바꿈하면서 일반인에게 개방됐고, 연간 15만 명이 다녀가는 대표적인 실내 스케이트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곳은 400m 국제 규격을 갖춘 빙상장으로 전체 면적 2만7067㎡(8187평)에 지상 3층의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한 번에 최대 600명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으며 꾸준한 냉동 설비와 아이스링크 보수 작업으로 국제 대회를 개최할 만큼 우수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 덕에 400m 링크를 질주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나란히 스케이트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태릉선수촌 인근 불거리도 놓칠 수 없다. 서울 태릉과 강릉, 옛 화랑대역(등록문화재 300호)은 고즈넉한 겨울 정취가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에 좋다.

추억의 썰매 타기... 얼음낚시 짜릿한 손맛

◇"겨울 축제를 즐기자"...경기 포천 산정호수 썰매축제·의정부 컬링센터 개장 = 눈과 얼음으로 가득한 겨울 축제장은 가족, 친구와 함께 겨울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포천에서는 산정호수 썰매축제가 열린다. 호수 위에서 펼쳐지는 겨울철 놀이 한미당이다. 빙상 자전거와 얼음 바이크, 썰매, 호수 기차 등 독특한 재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강물 위에 두둥실 떠다니던 오리배는 '오리타요'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해 풍광은 호수 위를 달릴 수 있도록 특별 제작됐다. 도리돌 마을에서는 28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열린다. 송어 얼음낚시와 얼음 미끄럼틀을 비롯해 나무 조형이와 옛날 썰매를 그대로 사용한 전통 썰매를 경험할 수 있다.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선 스케이트와 아이스하키를 3500원어린 기준의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 인기다. 특히 의정부 실내빙상장 옆에 전국 최대 규모의 컬링장이 이달 완공을 앞두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빙판 위의 체스'라 불리는 컬링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부쩍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종목이다.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다.

구곡폭포 높이 50m 아찔한 빙벽 등반

◇사색 눈꽃 트레킹 vs 짜릿한 빙벽 등반...강원 오대산 선재길과 춘천 구곡폭포 = 겨울 강원도는 눈과 얼음의 향연장이다. 동계를 립의 주 무대 평창에서는 오대산 자락 선재길 눈꽃 트레킹을 경험할 수 있다.

월정사와 상원사를 잇는 선재길은 예전 스님들이 오가던 길로, 평이한 등산로가 약 9km나 이어진다. 선재길 산행은 3시간 남짓 걸리며 설다리, 출렁다리 등 아기자기한 볼거리도 있다. 춘천 구곡폭포는 아찔한 빙벽 등반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봉화산 자락의 구곡폭포는 높이 50m 빙벽과 대형 고드름이 압권이다. 겨울이면 폭포에 로프가 걸리며 '스파이더맨'들이 빙벽 등반에 도전한다. 전망대에서 폭포를 지켜보기만 해도 짜릿하다.

상품의 속살

예가체프 코케 원두에 폴리페놀 함량 2~3배 풍부

品格 높은 프리미엄 커피 '노블'

최근 소비자들의 입맛이 고급화, 다양화함에 따라 보다 좋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기능성을 겸비한 프리미엄 커피가 인기다.

일동후디스는 고급 원두와 크림을 사용하고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 함량을 높은 프리미엄 건강커피 '노블'을 새롭게 선보였다.

'노블'은 미국 스페셜티커피협회(SCAA)가 인증한 스페셜티 커피 원두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코케' 원두를 사용했다. '예가체프 코케' 원두를 마이크로 그라인드(Micro grind) 공법으로 미세하게 분쇄하고 콜롬비아와 에티오피아 아라비카 원두와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해 풍부한 맛과 향을 담았다.

여기에 그린커피빈 추출물을 블렌딩해 일반 커피 대비 폴리페놀 함량을 2~3배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그린커피빈(생두)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이 다량 함유돼 있지만 로스팅 과정에서 온도에 따라 90%까지 소실된다. 이에 일동후디스는 신선한 커피 생두에 함유돼 있는 폴리페놀을 추출해 블렌딩하는 방식을



산악인들이 춘천 구곡폭포에서 빙벽등반을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 춘천시

실내도 좋고, 실외도 좋고... 신나는 스케이트 타기

◇남도의 겨울 레포츠...광주 실내빙상장과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팅장 = 광주 실내빙상장에서선 사계절 내내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 1년 내내 영하로 유지되며, 최대 500명 이상이 동시에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 맑은 하늘 아래 스케이트를 즐기고 싶다면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팅장을 찾으면 된다. 2013년부터 해마다 겨울이면 광주광역시청 앞 문화광장에 들어서서 스케이트장은 31일까지 운영한다. 광주에는 아이들과 함께 즐길 여행지가 많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어린이문화원이 대표적이다. 한나울 한복체험관과 남도향토 음식박물관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5·18 기념공원을 거닐며 역사를 배울 수 있다.

분천역 산타마을·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기차 타고 오지의 겨울 왕국으로...경북 봉화 분천역과 청송 얼음굴 = 낭만적인 기차여행을 원한다면 경북 내륙의 접접산중 승부역으로 가는 기차가 제격이다. 승부역 도착 전에 위치한 분천역은 산타마을로 유명한 곳이다.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탄 산타클로스와 기쁜 활영도 할 수 있다. 경북 청송에는 오지 골짜기라 불리는 얼음굴이 있다.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신비로운 곳이다. 한겨울이 되면 빙벽 등반가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다. 인공 폭포와 기암절벽이 장관 열어붙으면 거대한 빙벽장으로 변신한다. 해마다 1~2월이면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리며 세계 '빙벽 스파이더맨'이 총출동해 얼음굴을 달군다.

김민정 기자 mj@

날씨와 생활

피부 수분 밸런스 케어

에센스·수분크림·립밤 기초부터 공들여야 촉촉·탱글탱글 '꿀피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씨엔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지기 십상이다. 이럴 땐 피부 보습 및 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 공급과 탄력 케어 제품들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엔 이색적인 제형이나 독특한 성분 등으로 기능을 더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

피부 타입에 따라 골라 쓰면 된다.

뉴스킨 '에이지락 트루 페이스' 선보인 '에이지락 트루 페이스' 2층은 피부 탄력 개선에 관여하

는 핵심 성분과 보습 성분, 항산화 성분이 함유돼 겨울철에도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 결로 만들어주는 스킨케어 제품이다. '에이지락 트루 페이스'에센스 울트라 업리프팅 크림'은 탄력을 채우고 수분을 지켜주는 수분크림으로, 크림과 밤의 중간 제형인 멜팅 밤 텍스처를 적용해 부드럽다. 뿐만 아니라 피부 온도에 반응해 끈끈하게 밀착돼 무너짐 없는 보습막을 형성한다.

뉴스킨 '에이지락 트루 페이스'

항산화 성분 함유 피부탄력 유지

아이오페 '골든 글로우 페이스 오일'

가볍고 빠른 흡수 피부 당김 개선

LG생건 '빌리프 모이스춰라이징 립밤'

메마르기 쉬운 입술에 영양 보충

아모레퍼시픽의 아이오페 '골든 글로우 페이스 오일'은 골든 플라보노이드, 골든 루트, 골든 플렉스, 골든 니들 등 4가지 황금식물에서 뽑아낸 추출물 복합체 '골든 플랜트 드롭'을 사용한 오일 제품이다. 가볍고 빠르게 흡수돼 피부 당김과 처짐을 개선하는 게 특징이다.

LG생활건강의 '오후 에이지 리커버리

캡슐 앰플'은 콜라겐과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인 주니퍼러스, 잉카 오메가 오일을 함유한 캡슐 앰플이다. 겨울철 피부가 푸석할 때 크림 또는 베이스 메이

크림 제품에 섞어서 사용해도 좋다. '빌리프 모이스춰라이징 립 밤'<사진>은 건조해지고 메마르기 쉬운 입술에 영양과 촉촉함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습 폭탄 립밤'이라 불리는 이 제품은 시아버터 성분과 네이피어스 오리지널 포플러가 함유돼 있어 입술에 충분한 보습감과 윤기를 제공한다.

폴무원건강생활의 스킨케어 브랜드 이썬린의 '퍼스트 세럼'은 오일의 고영양과 세럼의 보습 기능을 갖춘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세럼 형태지만 문지를수록 오일처럼 변하는 신개념 제형으로 오일 특유의 겉도는 느낌을 보완하면서도 풍부한 보습감이 오래 유지되는 것이 강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철엔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 다른 계절보다 기초 단계부터 피부에 공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겨울철 가장 큰 피부 고민인 보습과 탄력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최근엔 이런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형과 성분을 지닌 제품들이 인기"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건강까지 생각하는 시그니처 커피' 슬로진

크리머도 1A등급 국산우유·코코넛오일 등 사용

자일로오스 넣어 건강한 달콤함까지 선사

채택, 커피 본연의 폴리페놀 함량을 높였다.

'건강까지 생각하는 시그니처 커피'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노블 카페라떼'와 '노블 커피믹스'에 사용되는 크림과 원료도 차별화했다. 식물성 경화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소화와 흡수가 빠른 형태의 중쇄지방산(MTC)과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된 코코넛오일을 사용했다. 또한 탈지분유 대신 신선한 1A등급 국산 우유를 더한 크림을 사용해 건강은 물론 라테 특유의 깊고 부드러운 맛까지 살렸다.

노블은 컵커피(RTD)와 스틱형 인스턴트커피, 2가지 타입 총 6종으로 구성돼 있다. RTD 컵커피는 최고급 원두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골드브루 추출해 부드럽게 즐기는 '노블 아메리카노', 1등급 국산 원유에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맛의 '노블 카페라떼', 설탕 흡수를 낮추는 자일로오스를 넣어 건강한 달콤함을 더한 '노블 에스프레소라떼' 3종으로 각각 280mg의 폴리페놀이 함유됐다. 스틱형 커피는 '노블 아메리카노', '노블 카페라떼', '노블 커피믹스' 3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품에 따라 각각 120~160mg의 폴리페놀이 들어 있다.

김기현 일동후디스 마케팅팀장은 "커피는 하루에도 여러 잔 마시는 만큼 좋은 커피를 선택해야 한다"며 "폴리페놀의 함유량, 원두 품질 등을 잘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신곡 '꿀림'으로 돌아온 양 파

성숙하고 단단해진 감성女王 이젠 도망치지 않을래요~

가수 양파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목소리가 몰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릇의 형태에 관계없이 그 모양을 따른다는 의미에서다. 지난해 12월 발매한 신곡 ‘꿀림’이 몰 같은 보컬을 들려줄 수 있는 시도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애송이의 사랑’처럼 노래할 순 없겠더라고요. 마구 의도해서 창법을 바꾼 건 아니지만 제가 변화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꿀림’을 만드는 과정은 (그동안 발표했던 노래 중) 가장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던 작업이었다. 양파는 ‘맨땅에 헤딩한다’는 각오와 ‘0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면, 언젠가 무언가로라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무언가’가 정량적인 성취가 아니더라도 양파는 좋았다.

가사를 쓰면서 양파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다. “20대 댄 저 스스로를 들여다봤어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가 큰 관심사였죠. 그런데 지금 제게는 제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남았잖아요. 그분들이 공감하고 좋아해줄 만한 노래를 만들고 싶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무엇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동하는지 알아야 겠더라고요.”

양파는 타칭 ‘비운의 아이콘’이다. 연이은 소속사와 분쟁 때문이다. 한때 불운의 이유를 타인에게서 찾으려 했다는 양파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공백기를 ‘업무 태만’이라고 지적한 취재진에게 크게 공감했다고.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업무태만이라는 말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쌓은 게 늘수록 한 걸음 떼기가 어렵고 무거웠단다. 소속사 없이 혼자서 활동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힘에 부쳤다. “투자를 받고 유통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작은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안으로만 숨고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시 나온 세상은 양파를 반겨줬다. 3년 전 MBC ‘나는 가수다’ 출연 당시 소속사가 없었던 그를 위해 PD와 작가가 매니저를 자처했다. “의기소집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마지막까지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어요.”

양파는 올해 꾸준히 싱글을 내고 싶다. 월 단위로 신곡을 발표하고 그것을 모아 정규 음반으로 안착시키는 것을 하나의 여정으로 보고 숨을 고르고 있다. “회사에서 ‘아이돌 먼저 내보내야 한다’며 제 노래를

미루지 않는 이상,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 하하하.” 먼 미래의 모습을 자주 상상한다는 그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꾸준히 사람들이 곁에 있고 싶다”고 털어놨다.

“어릴 땐 떠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양파라는 페르소나가 세상에 나온 이상, 이 친구의 이야기를 잘 써서 마무리 짓는 것이 제 의무처럼 느껴져요. 물론 지금도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팬들의) 사랑에 의해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살지 결정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발라드 장르의 곡을 주로 부른 탓에 양파는 늘 드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작업

‘몰 같은 보컬’… 창법에도 큰 변화

.....

연이은 소속사와 분쟁으로 망고썹

긴 공백기에도 변함없는 사랑 ‘감동’

.....

올해 꾸준히 신곡 발표하고 싶어

싱글 모아 정규음반으로 마무리

레스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그는 “내 꿈은 그것과 다르다”며 웃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양팔을 넓게 벌린 채 가창력을 뽐내면서 노래하는 모습, 그게 양파에 대한 이미지죠. 하지만 전 제 얘기로 멋진 노래를 만드는 음악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양파는 그것을 “죽을 때까지 놓을 수 없는 꿈”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든 여자는 고상한 옷을 입고 우아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반짝이 구두를 신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계속 변화하고 싶어요. 남들은 똑같다고 말할지 몰라도 제 안에서는 늘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제공 RBW



막돼먹은 가요계 그녀들이 뿔났다

그룹 바이브는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포맷과 의 합동 콘서트 ‘발라드림4’에서 발표곡 ‘압구정 4번 출구’를 부르며 몇몇 여성 관객의 얼굴을 화면에 비추고 “어디 어디 (성형)했어?”라고 물었다. 한 관객이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손가락으로 엑스(X) 표시를 그리자 “손가락도 못생겼다”고 응수했다. 공연 이후 관객들의 분노 어린 항의가 이어지자 소속사 메이저나인 측은 이날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형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영상과 멘트로 제멋대로 꾸미는 과정에서 지나친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 “관객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변명의 여지없이 저희의 실수이고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여성 비하와 성형 비난의 의도가 없었다는 말은 아마 진심일 것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 연예인의 과거 사진을 전시하며 그들의 외모를 웃음 소재로 삼는 행태가 만연하던 때가 있었으니까. 성형수술을 한 여성에게 “길으로 뺏아면 뭘해 속은 텅 비어 있는데”라고 지적하면서도, 외모로 여성을 평가하는 사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압구정 4번 출구’ 역시 발매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곡으로 여겨졌다.

“어디 성형했어” “손가락도 못생겼다”

바이브, 콘서트서 여성비하 발언 물의

래퍼 블랙티-키디비 사건 등 잇단 논란

“대중음악계 성차별적 행태 사라져야”

바이브는 그때 시간에 멈춰 있었다. 여성의 외모를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야기거리로 삼아도 괜찮았을 때.

이것은 비단 바이브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던, 혹은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적 인식이 가요계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보는 편이 옳다. Mnet ‘쇼미더머니4’의 블랙넛이나 송민호의 가사를 시작으로 대두된 대중음악계 여성 혐오 논란은 합참 신고 인디 밴드 신을 거쳐 아이돌 시장으로 이어졌다.

남성 가수들은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거나 반대로 자기 연민을 그리기 위해 여성을 끌어들이는. 이 과정에서 여성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공포나 여성을 타자화하는 가사에 대한 고민은 생략된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것은 많은 창작자들에게 관습적으로 고착화돼 섬세해진 대중의 젠더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했다.

하지만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그것이 가진 성차별적 성격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 책임은 당사자의 몫이다. 합참가수 블랙넛은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노래 가사 때문에 고소돼 제판을 받게 됐다. 반면 그룹 방탄소년단의 RM은 최근 열린 콘서트에서 성차별적 맥락의 가사를 수정해 불렀다. 여성 소비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대중문화 시장에서 젠더 감수성을 기르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사업적으로도 필수적이다. 논란에 코웃음 치던 누군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고 적극적인 개선을 보인 이는 또 한 번 팬들의 우상이 됐다.

과거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알려진 포토그래퍼는 자신이 소속돼 있던 음악 레이블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당장에 젠더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어렵다면 여성을 소비자로라도 인식하자. 제발 그렇게라도 변화자. 이은호 기자 wild37@

臨時休業 들어간 빅뱅... “금방 돌아오지 말입니다”

탑 이어 지드래곤·태양 올 軍입대 예정
대성·승리도 조만간 입대시점 밝힐 듯
YG “신인가수 활약... 매출 이상 無”

그룹 빅뱅이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빅뱅은 지난해 12월 30~31일 양일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월드투어 ‘2017 콘서트-라스트 댄스(2017 CONCERT LAST DANCE)’를 열어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군 복무 중인 멤버 탑을 제외한 4인은 이번 콘서트에서 “입대 전 마지막 공연”이라며 “이제 1막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1988년생인 지드래곤과 태양이 입대하고, 1989년생 대성과 1990년생 승리로 차례로 군 생활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성과 승리의 입대 시점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완전체 빅뱅이 모이까까지는 2년 이상의 공백이 필요하다.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문제도 있다. 빅뱅은 2016년 YG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했다. 계약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빅뱅의 복귀 시점과 계약 종료 시점이 겹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멤버들은 재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왼쪽부터 승리, 태양, 탑, 지드래곤, 대성.

사진제공 YG엔터테인먼트

지드래곤은 콘서트에서 “공연명은 ‘라스트 댄스’이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크지 않다. 마지막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잠시 떨어져 있을 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현석 프로듀서 역시 자신의 SNS에 올린 콘서트 뒤돌아한 현장에서 “앞으로 2~3년 뒤 빅뱅은 다시 시작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6년 데뷔한 빅뱅은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높은 인기를 얻으며 YG엔터테인먼트 내에서 최

대 매출 공신으로 꼽힌다. 지난해 일본에서만 총 20회의 공연을 통해 102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빅뱅의 ‘라스트 투어’ 투어 매출이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되면서 당장의 실적 하락은 피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빅뱅 공백에 따른 매출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의 박정엽 연구원은 YG엔터테인먼트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으면서 “라인업 다변화, 콘텐츠 제작 관련 수익 인식 가시화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수는 신인 가수들의 활약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1월 중 그룹 아이콘과 블랙핑크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아이콘은 최근 뮤직비디오 촬영을 시작해 컴백에 불을 지폈다. YG엔터테인먼트는 팬들의 희망사항을 적극 수렴해 아이콘을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블랙핑크 역시 이달 중 컴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업계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가 내놓은 신인 그룹에도 호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SBS ‘K팝스타 시즌2’ 준우승자 방예담이 속한 보이그룹이 올해 데뷔하고 YG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는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우승팀의 데뷔가 겹치면서 이들로 인해 실적 둔화가 완화될 수 있다고 내다본 것.

DB금융투자의 권운구 연구원은 “방예담이 포함된 신인 그룹에 JTBC에서 방송되고 있는 ‘믹스나인’을 통해 데뷔할 그룹까지 더해지면 2018년 신인 그룹 두 팀이 데뷔하게 된다”면서 “두 팀 모두 데뷔 전부터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확보한 후 데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궤도에 진입하기까지의 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YG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

기रो에 선 tvN 주말극 '화유기'

나 떨고 있나...



초유의 방송 사고에 스태프 추락 알려져
언론노조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촉구
고용부·경찰 조사 나서자 ‘제작중단’ 의견

tvN 드라마 '화유기'가 방송 재개 여부를 두고 기로에 놓였다. 사상 초유의 방송 중단 사고와 스태프의 낙상사고 등이 도마에 오르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처음 논란이 된 것은 '화유기' 2화의 방송 사고였다. 지난해 12월 24일 2회 방송 중 컴퓨터 그래픽(CG)이 완성되지 않은 편집본이 그대로 전파를 뒀다.

미완성된 장면이 노출된 것에 이어 장시간 예고화면 및 광고가 이어지던 끝에 이날 방송은 별도의 공지 없이 그대로 종료됐다. 이에 시청자 비난 여론이 들끓자 tvN 측은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2회 방송은 보편을 거쳐 다음날 25일 정상 송출됐다.

하지만 12월 23일 오전 2시께 '화유기' 촬영 현장에서 소도구 담당 스태프 A씨가 상들리에를 설치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유기'는 또 다시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tvN 측이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는 지적 또한 이어졌다.

tvN 측은 “이번 사고 직후부터 제작 책임자가 스태프 분의 응급실 이동과 초기 진료 과정까지 함께했으며 지속적으로 상호 연락을 취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의 친형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회사 측이) 먼저 사과를 하고 사죄문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속한데는 처음부터 얘기 한마디 전한 게 없었다”고 폭로하자, tvN과 CJ E&M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제작 환경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결국 고용노동부의 조사로 이어졌다. A씨가 속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12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화유기' 제작을 중단하고 근로환경 조사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또한 언론노조 요청에 따라 12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화유기' 세트장에서 추락사고 현장 근로 감독 및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인정해 △작업 중지 조치 및 현장 작업 중지 명령 △세트장 내 복재 사다리 사용 금지 △작업장 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지시했다. 12월 29일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2·3일 양일간 별도 조사를 진행했다.

A씨가 소속된 MBC아트 또한 '화유기' 제작사 제이에스픽처스 법인과 대표, 미술감독을 업무상 과실지상 및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경기안성경찰서는 목격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조사가 3일 마무리됐으며 피해자와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또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화유기'의 추락 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tvN ‘혼술남녀’의 잘못된 제작 관행으로 인해 2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한빛 PD의 유가족 또한 여전히 현장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CJ E&M의 행태를 지적했다.

'화유기'는 이승기의 군 제대 후 첫 작품이라는 점과 차승원, 오연서 등의 출연으로 시작 전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제작과정의 문제점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시작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6·7일 방송 예정이었던 3화와 4화의 방송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화유기'의 제작 중단을 바라는 대중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과연 '화유기' 사태가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지켜볼 일이다. 김예슬 기자 yeye@

퍼주기·쪼개기 남발...여전히 '그들만의 잔치'

의미 퇴색한 연말 연기대상

세말이 다가오면 방송가는 시상식 준비로 분주하다. 1년간 시청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거나 뛰어난 방송인, 배우, 가수, 프로그램 등이 이 시기에 제명된다. 그런데 시상식의 신뢰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추락하고 있다. 나노단위로 쪼개진 시상 부문과 공동 시상 남발은 연말 시상식을 각 방송사의 송년회쯤으로 보이게 한다.

특히 '연기대상'의 경우가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31일 방송된 2017 KBS '연기대상'은 장장 5시간 동안 무려 40개의 트로피를 남발했다. 총파업으로 인한 축소 진행이 예고됐으나 이 같은 많은 소리가 부끄러워진 형국이다. 장편드라마·미니시리즈·일일극·중편드라마로 부문을 쪼갠 우수상은 수상자만 12명이 나왔다. 군이 주연과 조연을 분리해 시상한 조연상은 4명에게 주어졌다. 이쯤 되면 시상식 시즌은 트로피 제조 회사의 대목이라고 봐도 좋지 않을가.

KBS, 5시간 동안 트로피 무려 40개
MBC 역시 40명 시상 '퍼주기' 여전
각 방송사 '송년회 잔치' 신뢰도 추락

MBC도 다르지 않았다. 총파업 끝에 김정경 사장을 퇴진시킨 MBC는 시상식을 변화의 분수령으로 삼으려 했다. KBS와 SBS에 비해 인상적인 작품을 남기지 못했지만, MBC는 스스로 개혁을 선언했다. 한동안 시청자 투표로 대상을 결정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던 MBC '연기대상'이 전문적 심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나서며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매년 일었던 퍼주기 논란은 올해도 여전했다. KBS와 마찬가지로 주말극·미니시리즈·연속극·월화극으로 부문을 나눴다. 심지어 최우수 연기상은 주말극과 주말극 연속극을 분리했다. 뿐만 아니다. 황금 연기상·코믹 캐릭터상·투혼 연기상·악역상은 받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을 더 지치게 했다. 수상자는 40명. '연기대상' 시상자로 사장 대신 무명배우 최고식을 세운 의미있는 행보도 잊을 정도였다.

22명의 수상자를 낸 SBS '연기대상'은 양호한 편으로 보인다. 그러나 SBS 역시 시상 부문이 월화·수목·일일&주말 드라마로 분리된 데다가 올해의 캐릭터 연기상이



라는 애매한 파트를 만들어 트로피의 무게감을 떨어뜨린 것은 마찬가지다.

사실 연말 시상식이 '그들만의 잔치'가 돼 버린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배우들은 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더라도 자리에 참석해 축제를 즐겼다. 예상치 못하게 후보에 올랐을 때는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보는 이들에게 떨리게 했고, 상을 받았을 때는 감격의 눈물로 감동을 선사했다.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감사드린다'는 말이 공치사로 들리지 않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방송가의 권력이 방송국에서 스타에게로 옮겨 가며 상황은 바뀌었다. 배우들의 몸값은 해당 1억 원을 호가할 만큼 치솟았고, 방송국은 이들을 모셔오기 위해 눈치 작전을 펼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기형적으로 변한 것이 자국의 시상식이다. 방송국이 스타들과의 관계 유지를

배우들 몸값 오르며 방송국들 '눈치' 연예인과 친분유지용 트로피 쟁기기
쏠림 현상도 심각...공정성 회복해야

위해 트로피 하나씩 쟁겨 주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상을 받지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배우들도 종종 있었다. 이제 누구도 각 방송사의 '연기대상'이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고 말하지 못 한다.

작정하고 상을 나눠 줄 요량이었다면 고르거나라도 분배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지상파 3사 '연기대상'의 또 다른 공통점은 쏠림 현상이다. KBS에서는 '썸, 마이웨이'가 8관왕, MBC에서는 '역적·백성'을 휩쓴 도작이 8관왕의 영예를 누렸다. SBS에서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가 5관왕에 등극했다. 때문에 이토록 많은 시상 부문이 존재함에도 홀대 받은 작품과 배우들이 넘쳐난다. 60여 명이 넘는 수상자를 22명으로 대폭 줄인 SBS '연기대상'의 노력은 부문 쪼개기 논란에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 KBS, MBC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 시청자들이 시상식이 주는 감동의 깊이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될 수 있겠지 주목된다.

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

'예능名家' 떠오른 JTBC, 시즌제로 '흥행 2막'

이젠, JTBC도 '예능 명가'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다. 출연진조차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던 '아는 형남'을 간판 예능으로 키웠을 뿐 아니라, '팬텀싱어', '힙합의 민족', '크라임씬', '히든싱어', '넌과 함께' 등 다수의 프로그램들을 시즌제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시청자 충성도도 높다.

2018년에도 JTBC 예능국은 숨 가쁘게 달릴 전망이다. '효리네 민박', '투유 프로젝트-슈가맨'(이하 슈가맨), '비긴어게인', 그리고 '비정상회담'이 연초 새롭게 정비된 시즌으로 돌아온다.

4개 프로그램 모두 효자 예능이다. 2014년 첫 방송돼 2017년 12월 시즌1의 막을 내린 '비정상회담'은 JTBC 예능이 자리잡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슈가맨'은 1990년대 복고 열풍과 맞물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효리네 민박'은 개국 이래 최고의 시청률과 화제성을 선물해 줬고, '비긴어게인'은 불모지나 다름 없던 일요일 예능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

가장 먼저 시즌2 제작 소식을 알린 것은 '효리네 민박'이었다. 이효라-이상준 부부의 결혼 생활을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광 속에 담은 이 프로그램은 사실 다음 시즌을 기대하기 힘



민박 신청자를 접수 중인 JTBC '효리네 민박2'(왼쪽)와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2'.

든 상황이었다. 이전부터 이효리의 제주도 자택을 무단 방문하는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들이 '효리네 민박' 방송 이후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이상준은 수차례 SNS를 통해 사생활 침해를 멈춰 줄 것을 요청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하지만 이효라-이상준 부부는 지난 시즌에서 민박을 찾은 손님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시즌2 제작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효리네 민박'을 그리워하는 대중의 환호를 받았다. 구체적인 방송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제주도의 1월과 새로운 아르바이트생들

만나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월 중에 방송이 예정된 '비긴어게인2'은 벌써부터 화려한 라인업을 완성했다. 박정현, 김윤아, 악동뮤지션 이수현, 로이킴, 헨리, 하림, 윤건, 자우림 이선규까지 출연을 확정된 상태다. 지난 시즌과 달리 '비긴어게인2' 출연진은 두 팀으로 나뉘어 해외 버스킹에 도전한다. 각 팀의 수장은 박정현과 김윤아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유재석의 첫 종합편성채널 출연으로 화제가 됐던 '슈가맨'도 3년 만에 안방으로 돌아온다. '투유 콤비' 유재석과 유희열이 메인MC

'효리네 민박' '슈가맨' '비긴어게인' 등
시즌2 방송 예정에 시청자들 기대



사진제공 JTBC

를 맡고, 개그우먼 박나래와 걸그룹 레드벨벳의 조이가 새롭게 진행자로 투입됐다. 가요계를 풍미했다가 일순 사라진 이들을 재조명한다는 콘셉트는 그대로지만, 어떤 가수와 곡이 나올지 예매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14일 첫 방송된다.

한편, 재정비에 돌입한 '비정상회담'의 시즌2는 현재 베일 속에 싸여 있다. 오랜 시간 마니아층을 형성해온 프로그램이었던 터라, 3월 새로운 모습으로 컴백할 시즌2에 예매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

올해 황금빛으로 물들일 '황금 개띠' 골프스타는 누구

‘8등신 미녀’ 전인지가 눈에 띄네

‘슈퍼스타’ 박성현(25·KEB하나금융그룹), 조던 스피스(미국), 저스틴 토마스(미국)은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닭띠들이다. 이들은 2017년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정 유년을 빛낸 골프 스타다.

박성현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데뷔하면서 39년 만에 대기록을 수립했다. 상금왕에다 올해의 선수상, 신인상까지 받았다. 박성현은 스타답게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첫 우승했다. 이어 캐나다 피시픽 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다. 비록 ‘주 전하’로 끝나긴 했지만 세계여자골프랭킹 1위까지 올랐었다. 현재 랭킹 2위에 안착했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잘나가는 ‘절친’ 스피스와 토마스도 대박을 터트렸다. 스피스는 지난해 트리플러스 챔피언십 연장전에서 환상적인 병커샷으로 우승한 데 이어 메이저대회 디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눈앞에 두고 있다. PGA 챔피언십만 남겨 놓고 있다.

토마스는 지난해에는 SBS 챔피언스 토너먼트에서 첫 우승컵을 손에 쥔 데 이어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까지 시즌 5승을 올렸다. 시즌 막판 페덱스컵을 제패하며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다.

스피스는 세계골프랭킹은 5위에서 2위가 됐고, 토마스는 22위에서 3위로 경종 뛰었다.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해를 맞으면서 이젠 개띠 중에 누가 ‘초대박’을 터트릴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4년생 골퍼 중 가장 눈에 띄는 스타는 역시 ‘8등신 미녀’ 전인지(24). 지난해 우승 없이 준우승만 5회를 한 전인지는 올해 가장 ‘핫’한 선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계약이 끝나면서 모자 앞면을 비운 채로 한 해를 보낸 전인지는 지난해 말 메인스폰서 계약이라는 큰 선물을 안았다. KB금융그룹과 계약을 하면서 박인비(30)와 한솔밥을 먹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연말 30일 평창올림픽 성화주자로 나서며 성화 봉송으로 스윙을 해보인 전인지는 “가슴이 설레고 기운이 솟구친다”며 “합찬 새 출발로 올해는 멋진 모습을 보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비록 2017년에 우승컵은 없지만 세계골프랭킹 5위에 오른 데다 평균 타수 69.415타를 기록하며 2016년 69.583타보다 나은 기량을 발휘했다. 기록 없는 꾸준함이 장점이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전인지의 값진 면모를 보였다.

사실 전인지는 LPGA투어 2년 차인 지난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남모를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얘기다. 자신을 다시 돌아보았고, 아픈 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인지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캠프를 차리고 시즌에 대비해 동계훈련에 들어갔다.

국내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는 배선우(삼천리)와 장수연(롯데)이 있다. 1994년 개띠다. 한국여



전인지, 작년 우승 없이 준우승만 5회
박인비와 KB금융 한솔밥…도약 다짐
세계랭킹 5위…美 올랜도서 동계훈련

KLPGA 활동하는 배선우·장수연
세계적 선수와 어깨…탁월한 기량 선보여
KPGA ‘매치 킹’ 이상엽 유망주로 부상

LPGA 주타누간 자매 동반우승 기대 커
PGA선 존 램, 차세대 주역으로 떠올라

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2승을 올린 배선우는 지난해 처음으로 US여자오픈에 출전해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다. 배선우는 2라운드까지 선두권을 달리며 선전했지만 최종일 19위에 그쳐 아쉬움이 컸다. 우승 운이 따라주지 않아 지난해 준우승만 3회 했다.

KLPGA투어에서 통산 3승을 챙긴 장수연은 모두 역전승으로 우승 타이틀을 손에 쥐었다. 지난해 LPGA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는 크리스티 커(미국)에게 우승을 내주며 준우승에 그쳤지만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탁월한 기량을 선보였다.

한국프로골프(KPGA)투어에서는 ‘매치 킹’ 이상엽(24·JDX멀티스포츠)이 유망주로 떠오르는 개띠다. 이상엽은 2016년 KPGA투어에서 가장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유일한 매치플레이 대회인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결승전에서 13번 홀까지 4홀 뒤져 있다가 14번 홀부터 5개 홀을 모두 따내면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LPGA투어 1994년생 스타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아리아 주타누간(23)의 언니 모리아 주타누간(태국)이 손꼽힌다. 2013년 LPGA투어 신인왕 출신인 주타누간은 지난해 프로 데뷔 후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아칸소 챔피언십과 블루베이 LPGA 준우승 2회를 비롯해 톱10에 무려 11번이나 이름을 올렸다. 우승 없이 총상금 132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상금랭킹 9위를 차지했다. 버디를 무려 428개나 잡아내 버디수 전체 1위에 올랐다. 자매의 동반 우승이 기대된다.

미국프로골프협회(PGA)투어에서는 1994년 개띠 존 램(스페인)이 1순위다. 존 램은 세계골프랭킹을 4위까지 끌어올린 차세대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PGA투어와 유러피언투어에서 총 3승을 챙겼다. 폭발적인 장타력과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세르히오 가르시아와 함께 ‘스페인의 쌍두마차’로 부상하고 있다.

루이 우스트이젠(남아공)과 라이언 무어, 모 마틴(이상 미국)이 1982년 개띠이고, 미국 스타 필 미켈슨과 짐 퓨릭은 1970년생 개띠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X박스를 만든 후, 왼쪽 골반은 오른쪽 클럽 그림의 끝 방향으로, 오른쪽 어깨는 왼쪽 클럽헤드 쪽에 위치하도록 반복한 상태에서 양손이 포개지는 릴리즈 동작을 익히면 좋다(왼쪽 사진). 왼쪽 어깨가 회전하지 못하고 경직된 자세가 되면 열려 맞는 자세 즉, 슬라이스 혹은 푸시 볼이 나오게 된다.

‘X박스 스윙’으로 올바른 폴로스루를



김수현의
fun한 골프레슨

몸통 회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방향성과 타구점이 일정치 않게 됩니다. 올바른 폴로스루 동작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X(엑스) 박스 모양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진과 같이 클럽 두 개를 겹쳐 놓고 x자 형태로 만들어 놓도록 합니다. 그 다음 어드레스 자세로 섭니다. 올바른 몸의 움직임은 왼쪽 골반이 바닥에 있는 왼쪽 그림 끝 방향으로 회전해야 합니다. 골반이 사선이 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 오른쪽 어깨는 왼쪽 클럽헤드 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골반이 회전하며 클럽페이스를 스퀘어로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양손이 몸 앞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동작을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회전이 되지 않아 올바른 폴로스루 동작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골퍼는 골반이 사선 모양이 되지 않고 목표 방향으로 밀리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양손이 몸 앞에 있는 상태에서 골반이 앞으로 밀리게 되면 클럽페이스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어깨가 회전하지 못하고 경직된 자세가 되기도 합니다. 클럽페이스를 스퀘어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열려 맞는 즉, 슬라이스 혹은 푸시 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역시로 클럽을 닫으려 해도 릴리즈 동작으로 부드럽게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는 볼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x박스를 만든 후, 올바른 위치에 몸이 갈 수 있도록 익혀 주는 동작을 하도록 합니다. 왼쪽 골반은 지면에 있는 그림의 끝 방향으로 오른쪽 어깨는 지면에 있는 왼쪽 클럽헤드 쪽에 위치하도록 반복합니다. 그 상태에서 양손이 포개지는 릴리즈 동작을 익혀 주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왼쪽 골반이 지면에 있는 샤프트보다 더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살짝 제어해 주어야 합니다. 골반 끝이 살짝 올라가며 회전되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지나친 골반 회전은 중심축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왼발을 지면에 강하게 눌러주며 동작을 익히면 더욱 안정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하게 눌러 주지 못하면서 과하게 회전하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1분 레슨 골프교습가

퍼팅 능력 높여주는 시력 교정은 겨울에



김부기의
골퍼와 눈건강

겨울은 실내 골프장에서 자세를 교정하고 스윙을 연습하는 등 골퍼 기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좋은 시기다.

하지만 아무리 골프 연습에 매진해도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난시가 심해 시야가 왜곡되면 퍼팅 실수가 잦아지기도 하고, 근시가 심한 경우 골프채를 휘두를 때마다 들쭉이는 안경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경이 두꺼우면 것이나 퍼팅라인이 왜곡돼 정확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퍼팅 시 좌우를 보기 어렵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세계 남녀 랭킹 상위권 선수인 로이 매컬로이(북아일랜드)와 리디아 고(뉴질랜드) 선수는 시력교정수술을 받고 안경을 벗은 채 경기에 임하고 있다.

골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안경이나 렌즈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력교정술에 관심을 가지는 젊은 골퍼들이 많다. 하지만 라식·라섹 수술 후에는 바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시력교정을 받고 싶어도 직장 업무나 학업이 바쁜 사람들은 시간적 부담 때문에 막상 수술을 나중으로 미루게 된다.

긴 회복 시간이 부담스러워 시력교정술을 받지 못했던 골퍼들에게 스마일라식을 추천한다. 스마일라식은 라식, 라섹에 이은 3세대 시력교정술로 독일에서 개발돼 한국에 들어온 지 7년째다. 각막 결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투과하는 펄스초(100조분의 1초)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 안의 속살

을 교정한다. 이후 2~4mm 정도의 절개창으로 교정 후 남은 각막 속살을 꺼내면 수술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각막 손상이 매우 적다. 각막 손상이 적은 만큼 시력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거의 없어 수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

스마일라식은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세안과 샤워를 할 수도 있고,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눈 화장을 제외한 간단한 화장도 가능하다. 금, 토요일에 수술을 받고 월요일에 바로 출근할 수 있다. 각막을 24mm 가량 절개하는 라식이나 약물을 이용해 각막 결면을 한 겹 벗겨내는 라섹에 비해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셈이다.

난시가 함께 있다면 간단한 수술적 처치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2.8~5.7mm의 미세 나이프로 각막 주변부를 살짝 더 찌고려져 있던 각막을 원형으로 복구하는 방법이다. 예민한 기관인 각막을 섬세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각막 전문의의 손길이 필요하다. 난시축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칼리스토 아이(Callisto eye)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기도 한다. 수술 2~3주 후 난시 도수가 안정되면 스마일라식, 라식, 라섹 등으로 근시를 교정할 수 있다.

물론 시력교정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골프 실력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안경·렌즈를 착용하고도 실력이 좋은 골퍼들도 있다. 오히려 안경과 콘택트렌즈에 익숙해 있는 골퍼의 경우, 오히려 맨눈이 적응되지 않아 헛스윙이 잦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골프 같은 구기 종목에서 정확한 시력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 없다. 시력교정 후 정기적인 안과검진과 관리를 통해 좋은 시력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온누리스마일안과 원장

‘동갑내기 절친’ 스피스·토마스 새해 첫 PGA투어서 정면 승부

센트리 챔피언스 ‘티오프’…김시우, 그레이슨 머리와 한組

골퍼들이 기다리던 골프 시즌이 미국에서 시작한다.

24살 동갑내기 ‘절친’ 조던 스피스와 저스틴 토마스(이상 미국)가 새해를 맞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첫 대결을 펼친다.

무대는 5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플렌테이션 골프코스에서 개막한 센트리 챔피언스 토너먼트(총상금 630만 달러). 지난해 PGA 투어 대회 우승자 34명만이 출전해 2명씩 한 조를 이루는 이번 대회에서 2016~2017 시즌 PGA 챔피언십 우승자 토마스와 디오픈 챔피언 스피스는 가장 마지막 조에 편성됐다.

토마스는 지난해에는 SBS 챔피언스 토너먼트라는 명칭으로 치러진 이 대회에서 첫 우승컵을 손에 쥔 데 이어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까지 시즌 5승, 페덱스컵을 제패하며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받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스피스는 지난해 트리플러스 챔피언십 연장전에서 환상적인 병커샷으로 우승한 데 이어 메이저대회 디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PGA 챔피언십만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세계골프랭킹 1위인 더스틴 존슨(미국)은 지난 시즌 PGA 투어 신인상을 받은 잔더 셔벨레(미국)와 한 조에서 플레이한다.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시우(23)는 지난해 바비솔 챔피언십 우승자인 그레이슨 머리(미국)와 한 조를 이뤘다.

SBS골프는 5일 오전 8시부터 생중계한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눈 없으면 필드에 사는 열혈골퍼 위해서라면

X골프, 파격 이벤트 ‘팍 팍’



플러자CC 설악

톨게이트비 지원 혜택 등 패키지 출시
팀당 4만원 할인하고 카트피 포함도

2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패키지 이벤트는 전라, 경상, 충청, 강원 지역 명문골프장에서 누릴 수 있다. 또한 패키지 예약 시 톨게이트비는 물론 팀당 4만 원의 할인까지 지원한다. 패키지는 36홀 그린피와 숙박, 조식을 기본으로 전라도는 △고창CC(10만5000원~)와 △레이크힐스 순천CC(22만5000원~) 등에서 라운드가 가능하다. 경상도는 △거제뉴CC(17만 원~), △오션비치CC(17만 원~) 등이다. 충청도는 △백제CC(16만8000원~)와 △현대 솔라고CC(18만 원~) 등이 있으며, 강원도는 △플라자CC설악(19만9000원~), △파인리츠CC(22만5000원~), △멜피노설악CC(24만 원~) 등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델피노설악의 경우 기본 구성에 카트까지 포함돼 있다.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했지만, 열혈골퍼들은 겨울에도 필드를 찾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을 골라 간다. 겨울에는 묘하게도 강원도 일부 지역이 서울보다 기온이 높아 눈만 없다면 골프하기에 적당하다. 이에 발맞춰 엑스(X)골프가 파격적인 가격에 골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다. 엑스골프가 톨게이트비 지원 혜택을 포함한 골프 패키지를 출시했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가상화폐, 藥인가 毒인가...서점 ‘가즈아!’

전 세계에 부는 가상화폐 광풍 속 규제 강화 움직임이 포착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창구가 다양해지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이스라엘 등이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부분은 가상화폐 시장에 약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장밋빛 전망’과 ‘흑빛 전망’이 엇갈리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양새다.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경우 한때 2500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며칠 만에 1400만 원대로 주락하며 충격을 안겼다. 4일 기준 1비트코인은 2000만 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상황 때문일까? 출판업계에는 가상화폐 관련 서적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가상화폐에 투자해 실제로 성공을 거둔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시골 영어 선생, 비트코인 투자로 매월 1억 번다’가 있는가 하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에 관심을 둔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가상화폐와 관련된 각종 논란을 담은 ‘가상화폐시대 무엇을 할까?’ 등이 대표 서적으로 꼽힌다.

우선 ‘시골 영어 선생, 비트코인 투자로 매월 1억 번다’는 진짜 ‘시골 영어 선생’인 구대환 씨가 비트코인을 접하고 가상화폐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비롯해 비트코인에 투자해 매월 1억 원을 벌기까지의 과정을 흥미롭게 담았다. 2015년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그는 2년여 만에 월 1억 원이라는 수익을 올렸고, 지금도 매달 1억 원씩 벌고 있다.

저자는 비트코인에는 지금까지 화폐에 없던 가



비트코인 투자로 매월 1억 번다
구대환

**실제 시골 영어교사의
3년간 투자 경험 담아**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마이클 케이시 외 1인

**화폐보다 기술로서
블록체인 가치 분석**



가상화폐시대 무엇을 할까
문인철 외 1인

**가상화폐가 주도할
4차 산업혁명 예측**

치가 있다고 강조한다. 탈권위적이고 탈중앙화한 비트코인의 결제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의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통화제도에서 발생하는 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비트코인 투자 경험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없애는



일에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며 “어떤 길을 가는가는 각자의 선택에 따르는 문제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을 보며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의 저자인 마이클 케이시와 폴 비나는 가상화폐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기술인 ‘블록체인’에 있다고 말한다. ‘블록체인’은 4차 혁명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다. 저자들은 블록체인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네트워크 기반의 거래 정부 기술”이라며 “기존 은행처럼 거래 정부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분산 처리로 해킹이 어려워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들은 ‘화폐로서의 비트코인’보다 ‘기술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눈여겨보아 한다고 역설한다. 비트코인 의사 소통 프로토콜은 전 세

계 많은 사람들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실행되며 그 핵심 기술은 바로 블록체인을 통한 장부 관리 및 통화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앙집권화된 현재의 화폐경제 체제가 향후 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모든 중개인의 역할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화폐 시대 무엇을 할까?’에서도 가상화폐를 잠깐의 투자수단으로 보기보다 가상화폐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오로지 ‘지금 사는 것이 정답일까?’를 생각하며 재테크로 고민하지만 오히려 가상화폐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예측하는 이가 미래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매우 명쾌하고 대담하게, 한 번 생긴 가상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금본위제가 달러본위제로 바뀐 것과 비슷한 수준의 화폐혁명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새로 나온 책



물론이죠, 여기는 네덜란드입니다
김선영 / 에이엠스토리 / 1만4500원

히딩크의 나라, 풍자의 나라, 튜립의 나라로만 기억되는 네덜란드의 실제 모습은 어떻게?

물론이죠, 여기는 네덜란드입니다’의 저자 김선영 씨는 이 책을 통해 네덜란드의 실제 모습을 네덜란드인의 에피소드를 통해 자세히 소개한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와 동성애를 인정한 나라이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낙태 또한 허용하고 있는 나라다. 또한 마약과 성매매가 모두 합법인 개방적인 나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낙태 했수는 오히려 아주 낮은 편이며, 네덜란드인들의 마라크나 흡연율은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비해 오히려 낮다. 성범죄율도 주변 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저자는 우연한 기회에 네덜란드에 살면서 그곳에서 만난 네덜란드 사람들의 32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에게 무척이나 낯선 네덜란드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특히 저자는 네덜란드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작은 네덜란드는 극단적인 가난도, 타인에 대한 무관심도, 패배주의도 없는 나라다. 개방성과 수용성이 개인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한다.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
마스다 무네타카 / 위즈덤하우스 / 1만7800원

츠타야는 음반과 서적, 생활용품과 전자제품, 여행은 물론 숙박까지 다루는 서점이다. ‘취

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는 그런 츠타야를 만든 CCC그룹의 마스다 무네타카 사장이 10년간 사내 블로그를 통해 사원들과 공유했던 1500건 가까이 되는 글을 추려 정리한 내용이다. 34년 전 35평 규모의 작은 대여점을 시작할 때부터 주위 평가에 신경을 끈 채 마음이 뜨거워지는 공간에 집중했던 그는 새로운 매장을 만들 때마다 고객의 기분으로 현장을 수없이 살폈다. ‘나라면 가고 싶은 곳인가’, ‘어떤 길을 지나서 어떤 풍경을 보며 매장에 들어오는가’ 등 수없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현장에서 찾은 아이디어들이 쌓여 지금의 획기적인 공간이 탄생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츠타야 매장은 일본 내 1400개, 연매출 2조 원, 회원 수 6156만 명을 자랑한다. “잘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열심히 한다”, “창조성이라는 재능은 고난으로 꽃핀다”라는 그의 기록은 남들이 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공간에 자신의 머릿속 생각을 실현하고자 애써온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내 최고 인기 作家는 이기주·유시민...해외는 히가시노 게이고

교보문교 작년 한 해 도서판매량 집계

2017년 도서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국내 저자는 이기주 작가, 해외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로 나타났다. 4월 교보문고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도서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국내 저자는 이기주 작가였다. 이기주 작가는 ‘언어의 온도’와 ‘말의 품격’ 두 권만으로 베스트셀러 저자 순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언어의 온도’는 2017년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작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내수 경기 침체, 북핵 위기 등으로 국내 분위기가 다소 삭막한 가운데 ‘언어의 온도’는 많은 이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왼쪽)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작가는 ‘언어의 온도’를 통해 말과 글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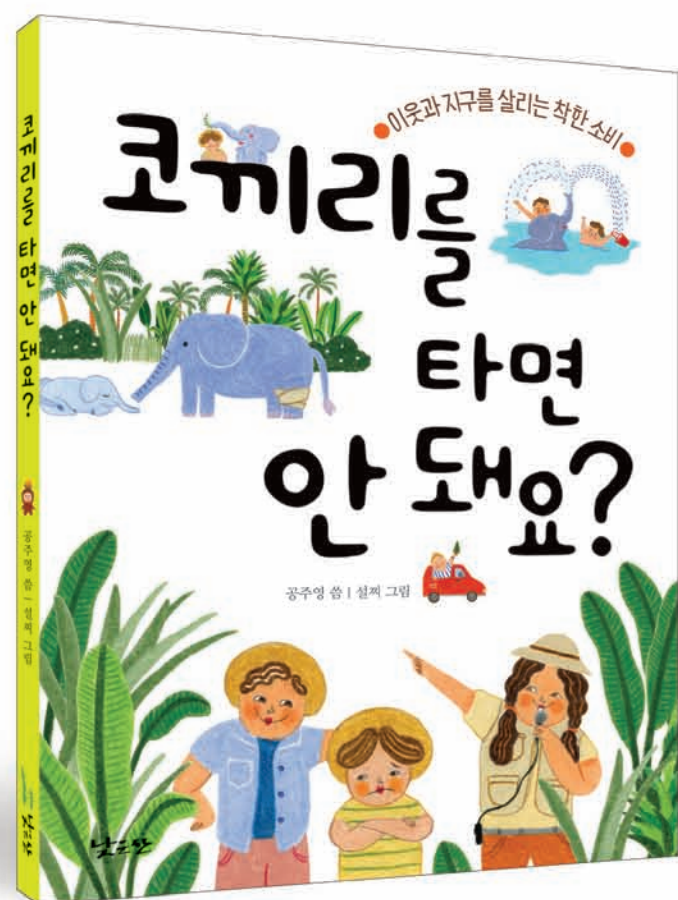
나름의 온도가 있다고 말한다. 적당한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주고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려가 마련이라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이 작가는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는 ‘말 온도’가 너무 뜨거워 소중한 사람이 결을 떠나고, ‘글 온도’가 너무 차가운 문장을 접한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처럼 ‘언어의 온도’는 저자가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말과 글, 단어의 어원과 유래, 언어가 지닌 소중함과 절실함을 담았다.

도서 판매량이 두 번째로 많았던 국내 작가 2위에는 유시민 작가가 이름을 올렸다. 유 작가는 출연 중인 TV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기존에 출

간한 수많은 작품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3위는 대한민국을 역사 열풍으로 이끈 설민석 작가, 4위는 ‘오직 두 사람’과 ‘살인자의 기억법’을 연달아 히트시킨 김영하 작가, 5위는 페미니즘 소설의 대표가 된 ‘82년생 김지영’의 조남주 작가가 꼽혔다.

도서판매량이 가장 많은 해외 저자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필두로 수많은 작품을 국내에 번역 출간한 히가시노 게이고였다. 2012년 3월 일본에서 출간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국내에서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지난달엔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간 ‘눈보라 체이스’도 출간돼 올해도 출판계를 이끌 대표작이 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이재영 기자 lly0403@



공주영 씀 | 실씨 그림 | 180 x 236mm | 128쪽 | 값 13,000원

코끼리 등에 타는 여행이 왜 문제일까요?

대형 마트보다 동네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것이 왜 같이 잘 사는 길일까요?

차를 나눠 쓰는 것은 어떻게 지구를 아끼는 일이 될까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의 이야기로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착한 소비를 만나보세요!**

① 로컬 푸드 - 캐나다의 농민 장터

② 노숙자 잡지 - 영국의 <빅이슈>

③ 공정 여행 - 태국의 ‘코끼리 자연공원’

④ 공유 경제 - 스위스의 카 셰어링

⑤ 사회적 기업 - 베트남의 ‘코트’

⑥ 소비자 협동조합 - 이탈리아의 쿵

⑦ 공정 무역 - 인도의 유기농 면화

⑧ 사회 공헌 게임 - 한국의 ‘트리플래닛’



‘골리앗’과 경쟁, 묘수 찾는 中小증권사

초대형 투자은행 탄생에 입지 좁아져
하나·IBK·대신, 그룹사와 시너지 제고
키움·KTB, WM사업 강화 수익 추구
유안타·이베스트는 고객 특화 서비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탄생에 입지가 좁아진 중소형 증권사들이 올해 사업 전략으로 ‘차별화’를 내세웠다. 기업금융은 물론 자산관리(WM) 등 전 사업영역에서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대형사들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그 배경이다.

◇혼자서는 안 된다…시너지 배가에 주력 = 자기자본 3조 원 미만 중소형사 6곳 중 하나금융투자,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은 그룹사와의 시너지 제고를 강조했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작년 말 하나금융지주 및 은행과의 협업 차원에서 WM그룹과 경영권 리그를 신설해 총 5개 그룹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WM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통솔해 전체 시너지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또 기존 투자금융본부를 2개 본부로 확대하는 한편, 작년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동산금융본부 산하에 부동산솔루션실을 별도 신설해 힘을 실어줬다.

IBK투자증권 역시 금융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중소형 증권사 6사 재무현황
(단위: 원, % / 2017년 9월 말 기준)

회사명	자본총계	ROE
하나금융투자	1조9542억	5.7
대신증권	1조7124억	5.2
키움증권	1조3924억	13.3
유안타증권	1조436억	5.6
IBK투자증권	5806억	6.6
KTB투자증권	4517억	8.1
이베스트투자증권	3810억	10.4

※ 출처: 금융투자협회

클라우드펀딩, 코넥스시장 등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선두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대신증권은 작년 대신에프앤아이(F&I) 등 그룹 계열사와 협업해 만든 부동산 투자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을 거두면서 협업을 통한 활로를 찾았다.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단순 협업을 넘어 사업부문간 융·복합을 통해 새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객에게 답 있다…서비스 강화가 먼저 = 반면, 최근 권용원 사장에서 이현 내장자로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된 키움증권은 독자적인 WM서비스 개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

다. 기존 온라인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WM사업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KTB투자증권의 경우 작년 성과가 좋았던 항공기금융과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석중 KTB투자증권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소형 IB 특화 전문사로서 신용등급 상향과 수익성 개선을 다짐한 바 있다.

유안타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고객 특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안타증권은 ‘펀드레이더’라는 인공지능(AI) 종목 추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업종별 전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역시 이와 유사한 ‘프라이빗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이 같은 중소형사들의 각자도생은 초대형 IB 등장에 따른 공룡된 위기감 때문이다. 중소형 증권사의 사업구조가 발행어음 등 초대형 IB들에게 허용된 일부 영업부문을 제외하고서 대형 증권사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국 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소형 증권사의 영업기반 확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중개부문 수수료율 인하, 신용공여 금리 인하 등 대형사의 공격적인 리테일 영업이 이어져, 중형사의 영업기반 훼손이 우려된다”라고 분석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신라젠, 매물 폭탄에 개미만 ‘피’ 봤다

최대주주 측 지분 매각 소문 퍼져
外人·기관 공시 전부터 대량 매도
정보 취득 늦은 개인 504억 순매수

지난해 파주지세의 상승세로 코스닥 대표주로 올라선 신라젠의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인들이 장내에서 지분을 대거 팔아치웠다. 문제는 공시도 하기 전,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소문이 퍼지면서 장중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해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 결국 500억 원 넘게 순매수한 개인투자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신라젠은 4일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문은상 대표이사와 특별관계자가 지난 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27만3997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밝혔다. 매도 금액은 약 27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번 최대주주 측의 지분 매각에 따라, 지분율은 기존 20.52%(1396만1731주)에서 16.53%(1124만7734주)로 3.99%포인트 감소했다. 이날 신라젠의 주가는 전일보다 10.49% 급락한 9만2200원으로 마감됐다. 장 초반 신라젠의 주가는 보험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일부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다는 공시가 나올 것이라는 루머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일부 주식 동호회 사이트에서는 구체적인 공시 시간까지 적시해 신빙성을 더했다.

결국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신라젠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거세지면서 주가를 빠르게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이날 신라젠의 주식 178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으며, 기관과 투신은 3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장중 매도했다.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등 모든 매수 주체가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사이 개인투자자만 50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심장지 않은 움직임에 증권가 일각에서는 신라젠 최대주주 측의 지분 매각이 공시 전 사전 누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신라젠의 주가 하락은 코스닥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 코스닥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라젠의 급락으로 이날 코스닥 지수는 1.74% 하락 마감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에 의한 부담감 때문에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인들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정보 취득이 늦은 개인투자자들만 집중 매수에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성시중 기자 ssi@

전·현직 CEO 출사표… 금투협회장 선거 ‘4파전’

정희동·권용원·황성호·손복조 ‘도전’
25일 임시총회서 자율투표로 결정



정희동 권용원 황성호 손복조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증권업계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 제4대 금융투자협회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정희동 전 KB투자증권 사장(62)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57)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사장(65) △손복조 토러스투자증권 회장(67) 등 4명이 차기 금투협 회장에게 도전장을 냈다.

정 전 사장은 NH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 아이엠투자증권(현 메리츠증권), KB투자증권(현 KB증권) 등 여러 증권사 사장을 두루 거쳤다.

권 사장은 기술고시(21회)에 합격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년간 공직 생활을 한 뒤, 2009년부터 키움증권을 이끌어 온 정수 CEO다. 3월 임기가 끝난다. 황 전 사장은 씨티은행 출신으로 다이너스카드 한국대표, PCA자산운용 대표, 우리투자증권 사장 등을 거쳤다. 손 회장은 1984년 옛 대우증권에 입사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장을 지냈고, 2008년 토러스투자증권을 설립해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다.

5명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2~3명의 후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차기 협회장은 이달 25일 임시총회에서 증권사 56곳, 자산운용사 169곳, 선물사 5곳, 부동산 신탁사 11곳 등 241개 정회원의 자율투표로 결정된다. 투표권은 회원사 1개사당 한 표씩 40%. 회비 분담률에 따라 가중치를 뒤 추가 배정된 60%로 각각 구성된다.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가 성립하면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된다. 누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득표자 대상 결선투표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자로 결정된다.

임기는 2월 4일 시작된다. 금투협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연임 포기를 선언한 황영기 현 금투협회장 임기는 내달 3일 끝난다.

김미정 기자 mik@

外人 3거래일 연속 “사자” 2500고지 재탈환

이주의 수급동향

포스코·삼성전자 등 대형株 위주 순매수

2018년 증시 개장 첫 주, 코스피는 반짝 강세로 장중 2500선을 재차 돌파하며 회복 신호를 나타냈다. 다만, 4일 기관 매물이 대량으로 출회하면서 2470선을 내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9%6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개장 첫 날인 2일부터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유지하며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연초부터 차익실현에 나섰다. 기관의 경우 금융투자업계(1조126억 원)와 사모펀드(657억 원), 국가지자체(936억 원) 등을 중심으로 총 1조674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개인은 6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번주 외국인 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토탈리턴(TR) 방식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MSCI Korea TR ETF’로, 총 204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외에도 △POSCO(1535억 원) △삼성전자(1416억 원) △현대상선(778억 원) △현대로보틱스(677억 원) △SK하이닉스(657억 원) △현대차(555억 원) △TIGER 200 ETF(468억 원) △신한지주(353억 원) △하나금융지주(301억 원) 등이 상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피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종목 (단위: 억 원)

순위	종목명	금액	순위	종목명	금액
1위	KODEX MSCI Korea TR ETF	2,040	6위	SK하이닉스	657
2위	POSCO	1,535	7위	현대차	555
3위	삼성전자	1,416	8위	TIGER 200 ETF	468
4위	현대상선	778	9위	신한지주	353
5위	현대로보틱스	677	10위	하나금융지주	301

코스피시장 투자자별 수급동향 (단위: 억 원, 기간: 1월 2~4일)

	개인	기관	외국인
	-68	-10,674	9,962

※ 출처: 한국거래소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경우 계속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코스닥으로 넓어가면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코스닥지수는 일명 ‘월 효과’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코스닥 육성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800선을 돌파했다. 지수는 4일 장중 825.57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1월 효과는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가 1월에 연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증시 현상을 말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아들아 펀드에 이어
주식투자도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유안타가문 대대로 전해오는
비금세가지.
티레이더
펀드레이더
티레이더
인포를 보내니
부디 성공투자하기를 바란다.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홈페이지 www.myasset.com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5%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홍콩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펀드레이더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오니아 ‘진단키트 3종’ 유럽 간다

(B형간염·C형간염·에이즈)

CE 인증 진행… 승인나면 2분 진단 기업으로는 최초
유전자 정보 증폭 검사, 민감도 좋아… 아시아 공략 박차

바이오니아가 현재 B형간염, C형간염, HIV(에이즈) 진단키트의 유럽 인증(CE)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 안으로 순차적으로 인증 받은 후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제품들이 CE-IVD List A를 획득하게 되면 분자진단 기업으로 아시아 최초가 된다.

5일 회사 관계자는 “현재 B형 간염, C형 간염, HIV 진단키트가 유럽 인증 중으로 올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인증에 성공할 것”이라며 “CE인증을 바탕으로 유럽시장 및 동남아 아프리카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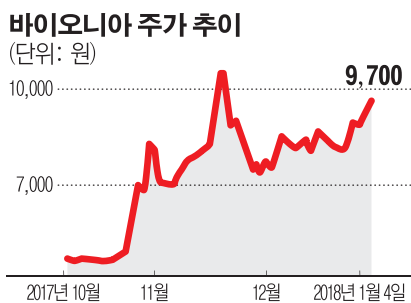
이어 “지난해 승인을 목표로 했지만 현지 의료기관 설비 등에 따라 조금 늦춰졌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충분하다”며 “진단키트 3종이 CE-IVD List A를 획득하면 아시아 기업 최초가 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니아는 1992년 설립된 분자진단 및 유전자 사약 전문기업이다. 바이오벤처 1호로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미국과 중국에 현지 법인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진단은 크게 면역진단과 분자진단으로 구분된다. 면역진단은 임신 테스트기와 비슷한 원리로 질병에 의해 생성되는 항체 등 간접인자를 검사한다. 분자진단은 DNA나 RNA 등 유전자 정보를 증폭시켜 직접 검사해 민감도가 높고 활용 범위가 넓다.

현재 분자진단 키트의 자체 개발 및



제품화에 성공한 회사는 해외 업체 2곳 가량으로, 바이오니아가 유럽에서 CE-IVD List A를 승인받게 될 경우 아시아 분자진단 기업으로는 최초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E-IVD List A는 유럽 통합규격 인증 중 최고 등급이다.

특히 바이오니아는 2016년 유럽 세계 최대 분자진단 업체 로슈와 비교 임상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했다. 같은 해 에이즈 환자가 많은 짐바브웨와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시장에도 진출하는 한편, 동

유럽 국가인 불가리아에도 C형간염 진단키트를 연구용으로 수출해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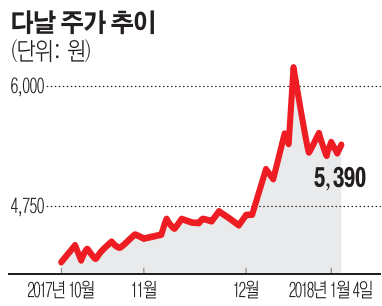
셀트리온, 신라젠, CMG제약, 팜스웰 바이오 등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가운데 바이오니아 측은 유럽 인증 획득으로 유엔펀드와 글로벌 펀드로의 공급을 꾀해 아프리카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16년 이 회사의 자카바이러스 진단키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사용을 승인받은 바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분자진단 시장은 연평균 13.8%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2016년 감염성 질환 분자진단 시장은 55억 달러(약 6조 원) 규모를 차지했다. 이 중 B형간염과 C형간염, 에이즈 진단 시장은 감염성 질환 시장의 약 70%에 달한다.

남주현 기자 jooh@

다날 ‘모바일 인증’ 美 이어 英 상륙

美 법인, 이통사 O2와 계약
디지털고객확인 서비스 제공



글로벌 결제전문기업 다날이 미국 인증시장에 이어 영국의 대형 이동통신사인 O2와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인증시장에 진출했다.

다날은 다날 미국법인인 영국의 대형 이동통신사인 O2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 디지털고객확인(eKYC)서비스 및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영국 내 모바일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편리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디지털고객 확인 및 돈세탁 방지(AML)에 대한 규정 준수와 요구 조건이 강화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결제서비스 지침(PSD2) 및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과 관련, 규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다날은 모바일 인증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날은 유럽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관리하고 신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날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인증 솔루션은 이동통신사와 결합해 현재 금융 기관 및 기업, 온라인 상거래 기업들에 이용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상거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실시간 모바일 인증 솔루션을

선을 제공하면서 미국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

짐 그린웰(Jim Greenwell) 다날 미국법인 최고경영자(CEO)는 “O2는 영국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이동통신 브랜드”라며 “이번 파트너십은 모바일 인증 서비스의 유럽시장 진출은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의 이동통신사 O2는 텔레포니카 UK 리미티드(Telefonica UK Limited)의 상업 브랜드로 25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가 제일 높은 이동통신사로 알려져 있다. 영국 전역에서 2G, 3G 및 4G 네트워크와 전국적으로 O2와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450개 이상의 매장과 ‘더(The) O2’, ‘O2 아카데미(Academy)’ 공간 및 ‘잉글랜드 럭비(England Rugby)’ 등을 후원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 이동통신사다.

권태성 기자 tskwon@

랩지노믹스, 피부관리 개인 유전자 검사 ‘위드진 스킨’ 출시

구강상피 세포로 간단하게 검사

분자진단 헬스케어 기업 랩지노믹스가 피부관리 분야 개인 맞춤형 유전자 분석 검사 ‘위드진 스킨’(WithGene Skin)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드진 스킨은 구강상피 세포 채취(Buccal swab)의 간단한 검체 채취 방식

을 통해 검사가 이뤄져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피부 관련 항산화 능력, 피부 탄력, 피부 노화, 색소 침착, 피부세포 재생력, 염증 체계 등 다양한 항목의 검사로 구성되며,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개인별로 특화된 피부 솔루션 및 맞춤형 화장품

을 추천해준다.

랩지노믹스는 제노힐과의 협력을 통해 제노힐 자체 화장품 브랜드 G2CELL(지투셀)과 연계해, 고객이 직접 개개인의 맞춤형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노힐은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라이프 솔루션

선을 제공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랩지노믹스는 지난해 4월 개인이 병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이용할 수 있는 DTC(Direct To Consumer) 서비스 ‘위드진’(WithGene)을 출시한 바 있다.

위드진은 비타민C 농도, 중성지방 농도, 피부탄력 등 건강, 피부, 모발과 관련된 12가지 항목 46개 유전자를 분석해 개인별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김우림 기자 hura@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글로벌텍스프리, 싱가포르 ‘텍스 리펀드’ 사업 날개

자회사 싱가포르GTF, 전세계 40개국 환급서비스 ‘핀트렉스社’의 텍스 리펀드 인수

글로벌텍스프리의 100% 자회사인 싱가포르GTF가 핀트렉스그룹 자회사 PTF(이하 핀트렉스)의 싱가포르 텍스리펀드 사업 부문을 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싱가포르GTF는 핀트렉스의 싱가포르 가맹점을 이전받게 되며, 핀트렉스의 주 고객인 글로벌 브랜드를 대상으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핀트렉스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50% 이상의 명품 브랜드 및 주요 쇼핑 중심

가 점포에 환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최근 마스터카드의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16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 중 태국 방콕(1941만 명), 영국 런던(1906만 명), 프랑스 파리(1545만 명), 아랍에미리트 두바이(1487만 명)에 이어 5위(싱가포르, 1311만 명)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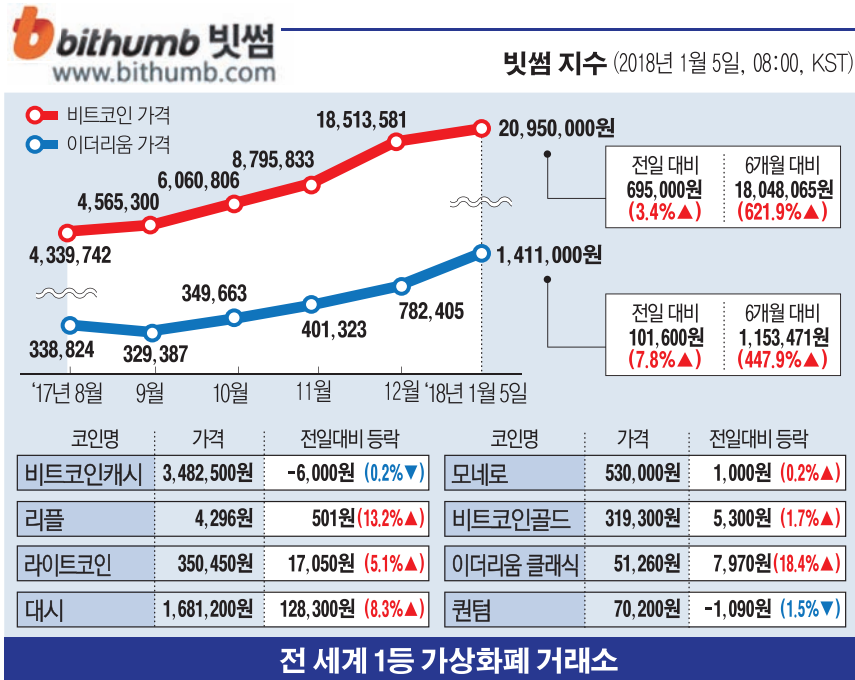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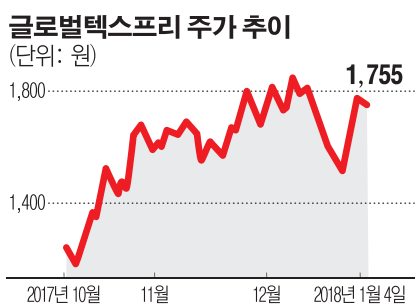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의 경우 두바이(285억 달러), 뉴욕(170억 달러), 런던(161억 달러)에 이어 4위(싱가포르, 157억 달

리)이다.

싱가포르GTF는 앞서 2016년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중앙환급장구 운영사업자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11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공항에서 환급장구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GTF대표는 “싱가포르 텍스리펀드 시장이 이제 경쟁 완화에 따른 향후 수익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지난해 흑자전환에 이어 올해에는 매출 100억 원 돌파와 시장점유율 30%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시니어 품격을 위한 문화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STORY 58을 위한 노래에는 숨표가 있다

- PART1. 고무신 신고 달렸던 개미들에게 축배를
- PART2. 58개미 “그땐 그랬지” - 먹고살 만해졌을 때 우리는 붓집을 뒀다
- PART3. 58개미 인생 5가지 이슈 87가지 키워드
- PART4. 우리 때는 말이야... - 58년생 그들의 청춘사업
- PART5. 철옹성 같은 개미 모임에는 ‘도래’의 운명적 침착이 있다
- PART6. 우리, 환갑상은 꼭 받자
- PART7. 58 감성 - 58'의 일그리진 영웅들
- PART8. 청바지와 기타 - 다시 돌아온 戊戌年!

제2직업 새해 주목해야 할 제2직업 키워드 5가지

올해 주목해야 할 사회 현상 중 하나는 은퇴 세대의 폭발이다. 이들이 한계연에 은퇴자 인력시장으로 몰리면서 평생 겪었던 경쟁 속으로 다시 뛰어들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니어에게 제2, 제3의 직업을 찾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가 됐다. 새롭게 떠오른 무술년 새해 우리는 새로운 직업을 위해 어떤 분야를 주목해야 할까.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서

자작나무는 예로부터 숲묘가 많은 나무 중 하나로 꼽혀왔다. 그래서 왜 인기 있는지 묻는다면 수많은 숲묘보다 자작나무의 매력은 역시 외형이 아닐까. 흰옷을 차려입고 굽힘 없이 쭉 뻗은 모습은 마치 고고한 선비를 연상시킨다. 흰 눈이라도 자작나무 숲에 내려면 몽환적인 풍경이 압도적이다. 자작나무 숲 여행은 겨울에 하라고 추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입맛 돋우는 매콤달콤 닭볶음탕

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냄비에 넣고 감자, 양파, 당근 등을 양념장과 버무리 자박하게 끓여 먹는 닭볶음탕. 졸이면 졸일수록 맛있어지는 마법이 일어난다. 잘 발라낸 닭고기를 국물에 촉촉하게 적신 다음 임의로 가져가면 밥 한 공기도 거뜬하다. 종로 골목에서 닭볶음탕으로 5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계림'을 소개한다.



스포츠 스타

‘소나기 펀치’의 대명사 유명우

1980년대 복싱은 한국의 3대 스포츠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인기 스포츠였다. 복싱 경기가 있는 날이면 팬들은 TV가 있는 다방이나 민화방에 상상으로 모여 응원했고 한국 선수가 우승하는 날이면 다방 주인이 무료로 커피를 돌리는 소소한 이벤트(?)도 열렸다. 1980년대를 풍미한 복싱 영웅 유명우를 그의 체육관에서 만났다.

동년기자의 페이지

박종선·송운곡·이경숙·이현숙·장영희
벚에 대하여...

부치지 못한 편지

윤정모 소설가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에 있던 말입니까?



가전, 작품이 되다

초프리미엄 가전, 그 위대한 여정 **LG SIGNATURE**